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외교학석사학위논문

냉전기 북한 핵담론의
변화 요인 분석:
미국의 핵전략을 중심으로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전공
조 채 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한 조선로동당에서 발간하는 『로동신문』 기사들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냉전기 북한 핵담론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냉전기 북한의 핵위협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본 논문이 주목한 변수는 미국 핵정책에서 핵 선제공격 의도와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 보유 여부였다.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1957년부터 1986년까지 『로동신문』에서 “원자” 또는 “핵”을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 포함한 기사들을 분석하여 냉전기 북한 핵담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담론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거시적 분석방법과 핵담론을 구성하는 단어의 사용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거시적 분석방법에서는 핵 관련 로동신문 기사의 게재 빈도수 분석과 매년의 로동신문을 하나의 문서로 간주하여 상관성을 기반으로 유사한 내용의 문서들을 군집화하는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하여 핵담론의 분기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의 연구 시기에 해당하는 30년 동안의 북한 핵담론이 크게 ① 1957-1961년 ② 1962-1973년 ③ 1974-1980년 ④ 1981-1986년의 네 개의 시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미시적 분석 방법으로는 단어 빈도수 분석과 한 문서 안에서 동시에 등장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단어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내용상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실시하여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핵위협인식의 변화는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과 미국의 핵선제공격 의도의 변화와 유사한 궤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핵선제공격 의도와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이라는 두 요인 모두 충족할 때, 북한의 핵위협인식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불충족할 때는 핵위협인식이 크게 약화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두 조건이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의 변화는 북한의 핵위협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였다. 그러

나, 반드시 북한의 핵위협인식이 미국의 선제공격 의도와 부합하지는 않았다.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자국을 둘러싼 안보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위협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북한 핵위협인식에 대한 계량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변수를 제시했다는 점과 질적·양적 연구방법을 혼용함으로써 질적 연구가 내포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일관성과 체계성, 그리고 검증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에 의의를 갖고 있다.

주요어 : 북한, 북한 핵담론, 미국 핵전략, 텍스트 분석, 위협 인식

학번 : 2013-20200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 의의	4
1) 북한 핵담론에 대한 연구	4
2) 북한의 핵개발 추동 원인에 대한 연구	6
(1) 안보적 요인에 근거한 연구	6
(2) 국내 정치적 요인에 근거한 연구	9
(3) 규범적 요인에 근거한 연구	10
3)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함의	11
3. 연구 방법 및 자료	13
1) 연구대상의 설정	13
2) 분석방법	14
4. 논문의 구성	18
 II. 냉전기 미국의 핵전략 및 한반도 핵정책 전개	 20
1. 아이젠하워 행정부 (1953-1961)	20
2. 케네디 행정부 (1961-1968)	25
3. 닉슨·카터 행정부 (1969-1979)	28
4. 레이건 행정부 (1980-1986)	31
5.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 전개	32
 III. 냉전기 북한 핵담론의 전개 (1957-1986)	 37
1. 북한 핵담론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	37
1) 핵관련 로동신문 기사 게재 빈도수 분석	37

2) 문서 간 상관계수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분석	93
3) 시기별 출현 빈도 상위 단어 분석	41
2. 냉전기 북한 핵담론의 시기별 내용 분석	44
1) 평화 공존 정책과 한반도 핵위협 등장 (1957-1961)	44
2) 미국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과 반핵 투쟁 (1962-1973)	76
3) 한국의 핵무기 개발과 술레진저 독트린의 발표 (1974-1980) ..	52
4) 핵문제의 한반도화 (1981-1986)	55
 IV. 냉전기 북한 핵위협인식의 변화 동학	59
1. 핵위협담론 구성요소의 시기별 특징	59
1) 한국발 핵위협담론의 등장 (1957-1961)	61
2)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핵 위협 소재지의 전이 (1962-1973)	62
3)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핵 위협 소재의 재전이 (1974-1980)	65
4) 한국발 핵 위협의 강화 (1981-1986)	67
2. 감성분석을 통해 살펴본 냉전기 북한 핵위협인식의 변화 추이	68
1) 핵위협인식 변화의 요인	69
2) 핵위협인식의 변화 동학	73
3. 소결	79
 V. 결론	81
 참고문헌	85
Abstract	94

표 목 차

표 1 시기별 출현 빈도 상위 30개의 단어	42
표 2 미국에 대한 북한의 표현 분류	43
표 3 미국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 및 반대 집회 참가 인원	51
표 4 북한 핵위협담론 구성요소의 시기별 특징	61
표 5-1 미국의 핵 선제공격 의도 요인 및 주한미군의 핵 공격 능력 보 유 요인	70
표 5-2 변화요인에 따른 시기 구분	72
표 6 핵위협 관련 핵심어가 포함된 단어	74

그 림 목 차

그림 1 핵 언급 기사 연간 빈도수 (1952-1986)	3
그림 2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의 절차	15
그림 3 한국의 핵무기 배치량	34
그림 4 핵 관련 기사의 연간 빈도수 (1957-1986)	38
그림 5 문서 간 상관성 계수를 이용해 분석한 북한 핵담론의 클러스터 링 구조(1957-1986)	93
그림 6-1 북한 핵담론의 단어간 연결망 (1957-1961)	46
그림 6-2 북한 핵담론의 단어간 연결망 (1962-1973)	50
그림 6-3 북한 핵담론의 단어간 연결망 (1974-1980)	52
그림 6-4 북한 핵담론의 단어간 연결망 (1981-1986)	56
그림 7-1 북한 핵 위협인식의 통시적 변화 (1957-1986)	75
그림 7-2 핵무기 반대에 대한 북한의 언급 추이 (1976-1986)	78

I. 서론

1. 문제제기

1989년 9월 15일 프랑스 상업위성 SPOT 2호가 영변 핵시설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 핵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지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번번이 좌초되었고 그 사이 북한은 2012년 4월 13일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고, 2016년 9월 9일 제 5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기술을 격상시켰다.¹⁾ 오늘날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이자 동북아시아의 유일한 비강대국 핵보유국으로 지역안보 불안정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 정권은 자국의 핵무장을 미국의 핵정책과 대북 적대시 정책에서 기인되는 안보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 조치라고 주장해왔다.²⁾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북한은 냉전기부터 미국으로부터 핵 위협을 포함하여 끊임없는 안보 위협을 받아 왔고, 따라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핵위협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안보 위협으로부터 “조선반도 평화와 조선 민족 안전을 지켜내는 만능 보검”인 핵보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³⁾ 더 나아가 북한은 자국의 발전된 핵 역량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핵무기 보유가 대미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임을 밝혔다.⁴⁾

실제로 북한은 스스로 핵무력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

1)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핵무기의 “소형화·경량화·다종화(多種化)” 실험 성공을 발표하였다.

2) 2015년 9월 19일 『로동 신문』에서 북한은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발표하였다.

3) 『로동 신문』, 2015년 9월 19일.

4) 북한은 “우리의 핵 억제력은 미국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질량적으로 장성강화”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핵전쟁을 도발한다면 그것은 곧 자멸을 선택하는 것”이고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꿈에서 깨어나 이제라도 한시바삐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로동 신문』, 2015년 9월 19일.

국의 핵위협을 겪어 왔다는 점에서 독특한 역사를 지닌 나라이다. 비록 실행에 옮겨지지지는 않았지만 한국 전쟁 기간 동안 트루먼 행정부와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몇 차례 핵무기의 사용을 검토했었고,⁵⁾ 미국의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의해 공개된 미 국방부 및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늦어도 1958년 1월부터 1991년 완전 철수되기까지 약 30년 동안 핵탄두 발사가 가능한 무기체계가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되었었다.⁶⁾ 때론 미 정책자들이 핵무기가 북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일례로 닉슨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제임스 Schlesinger(James Schlesinger)는 1975년 4월과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만약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면 핵무기로 보복할 것이라고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밝혔다.⁷⁾

그러나 구체적으로 미국의 어떠한 정책이 북한 정부로 하여금 안보 불안에 시달리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완전 철수된 오늘날에도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다소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미국의 핵 위협은 단순한 미사여구인가? 아니면 실존하는 위협인가? 만약 핵 위협이 실존한다면, 북한이 말하는 “핵위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나아가 북한에게 “핵위협”을 가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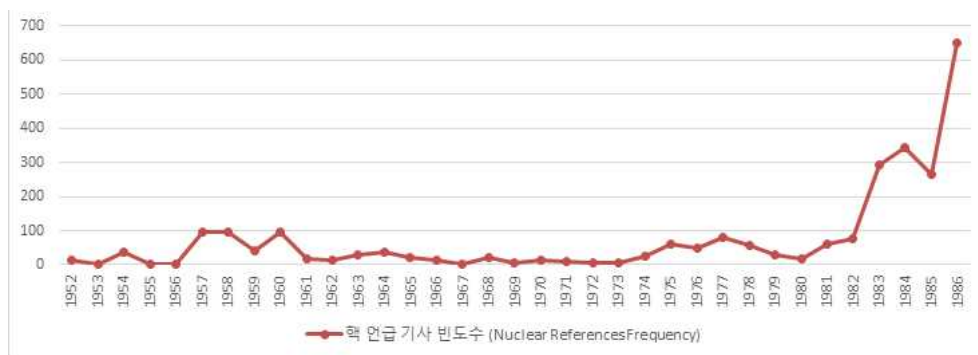
<그림 1>은 1952년부터 1986년까지 북한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서 핵을 언급한 기사의 빈도수를 보여준다. 그래프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핵에 대한 북한의 관심도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크게 네 번의 분기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국 전쟁에서 미국의 핵사용 문제에 관한 연구로는 김상배,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1991).을 참조.

6) Peter Hayes,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New York: Lexington Books, 1990), p. 35.; 박태균, “1950년대 미국의 정전협정 일부조항 무효선언과 그 의미,” 『역사비평』, (2003년 여름), p.4; 조동준, “북한 핵교리의 변화와 미중 협력,” 전재성·구민교 편저,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서울: 늘봄플러스, 2015), pp. 253~254.

7) Hayes, 1990, p.199.

1952년부터 1956년까지 로동신문 내에서 핵을 언급한 기사는 연평균 10.2건에 그쳤다. 그러나 1957년에 들어서면서 핵에 관련된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100건에 달했고 이와 같은 현상은 1960년까지 지속되다가 1961년 급격히 감소하였다. 1960년대에도 핵문제에 대해 보도하기는 하지만 1950년대 후반에 비해 빈도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1970년대 초반에 들어가면서 더욱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1974년에 접어들면서 핵 언급의 빈도수는 또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1977년을 끝으로 다시 감소 추이를 보였다. 핵 관련 기사는 1980년대 들어 또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86년에 이르러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 핵 언급 기사 연간 빈도수 (1952 - 1986)

出處: 로동신문, 로동신문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가 구성

로동신문의 핵문제에 관한 기사 게재 빈도수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관심도 또는 해당 시기 정책에서 핵문제가 차지하는 비중 정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에 의하면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감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핵문제에 대한 북한정부의 관심도는 왜 변화했는가? 구체적으로 핵담론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더 나아가 북한의 핵 위협인식은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했는가?

본 연구에서는 외부로부터 핵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심리적 두려

움을 ‘핵위협인식(nuclear threat perception)’으로 정의하고, 북한의 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냉전기 북한의 핵위협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변화의 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⁸⁾ 더 나아가, ‘미국의 핵 선제 공격 의도’와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 여부를 고려하여 북한의 핵위협인식의 동학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 의의

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존연구는 크게 북한 핵 담론에 대한 연구와 북한 핵개발의 동인을 찾는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핵담론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핵정책을 분석하려는 연구이며, 후자는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연구이다.

1) 북한 핵담론에 대한 연구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북한 정부의 핵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발행하는 공식 자료들을 활용한 담론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으며, 질적·양적 연구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북한의 핵담론에 대한 대표적인 질적 연구로는 구갑우(2015)와 조동준(2015)이 있다. 구갑우는 1947년부터 1964년까지 북한 핵담론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와 핵억제, 핵위협과 핵확산, 그리고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 모두 등장하였고, 핵담론의 변화는 핵 능력보다 핵 심리(nuclear psychology)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동일하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친구 또는 적으로 규정하는 정체성(identity)의 정치에 따라 상이한 담론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북한

8) 구갑우에 의하면 핵 위협은 “비핵 국가가 핵 국가와 적대관계일 때 느끼는 심리적 상태”를 의미한다. 구갑우,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북한연구』, 17권 1호. (2014.4), p. 9.

과 적대관계에 놓여있는 미국의 핵무기 보유를 반대하는 핵금지담론과 핵위협담론을 제시한 반면, 우방국인 소련과 중국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자 핵무기를 긍정하는 담론을 생산하였다고 분석하였다. 조동준(2015)의 연구는 북한 핵교리를 추론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의 핵교리의 발전 과정을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본 다음,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북한이 중국의 핵무기무용론을 강조하고 최소억제를 지향하였으나 2012년 이후 핵실험 이후의 소련과 유사하게 핵선제타격을 지향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중국과 소련의 핵교리의 변화를 통해 독재국가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견해와 상대방의 핵전력과 통상전력에 대한 판단, 그리고 전쟁 경험의 영향이 핵교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중구(2016)의 연구는 탈냉전기 북한 핵담론이 당론화되는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북한의 개방지향적 경제전략과 주변 강대국의 대북 관여 기회라는 요인이 북한의 핵외교 동기를 강화시키는 동시에 한국의 대북관여와 미국의 대북관여는 북한의 핵개발 동기를 약화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이중구는 북한의 핵담론을 크게 구체적 정책 방향에 대한 핵담론과 일반적 정책필요성에 대한 핵담론으로 구분하였다. 두 가지 축을 따라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담론들을 구분하자면 정책적 방향 중심 담론(대응 방안)에는 핵무기금지 담론, 평화적 핵이용 담론, 핵개발지지 담론, 핵교리 담론이 포함되며 핵위협담론은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한 담론에 해당한다. 이중구는 정책적 방향 중심 담론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담론이 가지는 각각의 학술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담론 연구에서 실천적 논증(practical argument)가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책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에 관한 담론 연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물론 특정한 행동 방안과 정책을 선호하거나 수용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한 연구의 가치는 중요하다. 하지만, 한 행위자가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통계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담론을 분석한 연구로는 리치(Rich 2013, 2014)와 박종희 외(2015)의 연구가 있다. 리치는 조선중앙통신(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에 대한 자동화 내용 분석

을 통해 탈냉전기에 북한정부가 핵이슈를 어떻게 프레임하는지를 밝혀냈다. 리치의 연구에 의하면 핵문제와 미국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 6자 회담의 다른 국가 행위자들과는 상관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발생한 천안함사건과 연평도사건 이후 핵이슈와 김정은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부재하였음을 밝혀냈다.

박종희 외(2015)는 1969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발행된 북한 신년공동사설(이하 신년사)를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핵문제에 대한 북한정권의 태도변화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핵문제에 대한 북한정권의 입장을 핵무기 보유와 핵무기 반대로 구분한 후 각 입장을 뒷받침하는 단어들을 제시하여 장시간에 걸친 북한 정권의 태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연구 기법을 소개하였다.

2) 북한의 핵개발 추동 원인에 대한 연구

핵확산 이론에 의하면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 요인을 크게 안보, 국내정치, 규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⁹⁾

(1) 안보적 요인에 근거한 연구

안보적 관점에서 북한의 핵개발 원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크게 방어적 현실주의(defensive realism)와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로 나눌 수 있다. 방어적 현실주의에 의하면 북한은 안보 불안을 상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중앙권위체제가 부재하는 무정부(anarchy)

9) Victor Cha,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17, 2. (June 2002), pp. 209-230.; Dong-Joon Jo and Erik Gartzke. 2007.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51, No. 1 (February 2009), pp. 167-194.; Scott D. Sagan,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97) pp. 55-86.

상태로 특징지어지는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모든 국가의 최상위 목표는 ‘생존(survival)’이다. 따라서 각 국가는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자조(self-help)의 수단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스스로 군사력을 키우거나(내부균형) 다른 국가와의 안보동맹을 체결함으로써(외부균형) 달성할 수 있다.¹⁰⁾ 이러한 의미에서 핵무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안보 효과를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모든 국가가 핵보유를 추구하지는 않는다. 특히 약소국의 경우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예상되는 각종 비용들을 감당해야하기 때문이다.¹¹⁾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스스로 통상 전력을 강화하거나 동맹국의 핵우산에 의존함으로써 외부 위협에 대처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맹국의 핵우산 제공 여부를 신뢰할 수 없을 때, (핵 위협에 대항하여) 국가들은 핵무장을 고려하게 된다.¹²⁾

방어적 현실주의의 시각에 의하면 북한에게 핵무기는 심각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이다. 먼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야기했다는 연구로는 마자르(Mazarr), 버뮤데즈(Vermudez), 커밍스(Cummings), 헤이즈(Hayes), 차와 강(Cha and Kang), 이재봉의 연구가 대표적이다.¹³⁾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의 연구는 북한의 핵개발의 주요 원인이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뿌리 깊은 대북 적대시정책에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⁴⁾ 헤이즈와 이재봉은 냉전기 미국의 핵전략

10) 신현실주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Kenneth Waltz, Kenneth. *The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79).를 참조.

11) 공급 측면(supply)을 강조하여 핵기술이 확산되면 모든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핵물질 또는 핵무기 개발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공급 측면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핵확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정치적 동기(motivation)와 비확산 규범(nonproliferation norm)이 제시되었다.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Jo and Gartzke·2007·pp. 167-194을 참조.

12) 1970년대 초반 주한미군의 부분 철수와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지켜보며 미국으로부터 동맹 방기(abandonment)의 위협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핵프로그램을 극비리에 추진하였다.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Don Oberdorfer and Robert Carli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2013)을 참조.

13) Michael J. Mazarr and Eveline Cruickshanks, *North Korea and the bomb: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London: Macmillan, 1995).

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¹⁵⁾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북한은 미국의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으로 핵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¹⁶⁾

다음으로 미국의 핵위협뿐만 아니라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동맹 방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동했다고 바라보는 연구로는 플라츠코브스키(Platkovskiy), 위트 외(Wit 2004), 임수호(2007), 쉐(Shen), 손용우(2012)가 있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 소련의 핵무기 개발 지원 거부, 1968년 푸에블로호 사태를 겪으며 소련으로부터의 방기당할 두려움이 증가했다. 한편, 순망치한(唇亡齒寒) 또는 혈맹관계(鮮血凝成)로 알려진 북중 관계도 역사적으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1966년 중국의 문화대혁명이 시작되면서 북한과 중국 간의 당·군·정 고위인사들의 교류가 중단될 만큼 북한과 중국은 이념적으로 대립하였다. 플라츠코브스키와 쉐는 냉전의 종식 이후 소련과 중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북한의 의심이 증가하면서 안보 불안이 증가하였다고 보았다.¹⁷⁾

반면 공격적 현실주의들은 국가의 제일 목표는 최대한의 국력을 갖추는 것이며 따라서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현상 변경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¹⁸⁾ 공격적 현실주의는 핵무기를 재래식 군사위협을 억제하는 수단이 아닌 현상 변경을 위한 강제 수단(coercive tool)으로서

14) Bruce Cumings, *North Korea: Another Country* (New York: New Press, 2004).

15) Hayes·1990.; 이재봉, “남한의 핵무기 배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평화학연구』, 제9권 제3호 (2008년 12월), pp. 27-48.

16) Victor D. Cha and David C. Kang,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3).

17) Alexandre Platkovskiy, “Nuclear Blackmail and North Korea’s Search for a Place in the Sun,” in James Clay Moltz and Alexandre Y. Mansourov. (ed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New York: Routledge, 2000). pp.93~100.; Dingli Shen,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toward North Korea,” *Washington Quarterly*, Vol. 32, No. 4 (October 2009), pp. 175~188.

18)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

의 기능에 주목한다. 이러한 시각에 의하면 북한은 냉전기에는 적화 통일, 탈냉전기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미국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 저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관계의 회복 등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공격적 강제 위협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연구로는 세이건과 임수호가 있다.¹⁹⁾

(2) 국내 정치적 요인에 근거한 연구

핵확산의 원인으로 국내 정치적 측면을 주목하는 시각은 국내 정치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무기 개발을 선택했다고 설명한다. 핵무기 보유는 민족주의적 정서를 고양시켜 국내불안정 요인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국내 정치적 불안이 북한의 핵개발을 자극했다고 분석한 연구로는 에텔 솔린겐(Etel Solingen 2007)과 안문석(2011)의 연구가 있다. 솔린겐(2007)은 북한이 매우 취약한 안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한의 핵개발을 안보 요인만으로 설명하는 기존 연구들에 의문을 제기하며 핵무기가 가지는 국내정치적 효과를 조명하였다.²¹⁾ 솔린겐에 의하면 주체사상과 자립경제 수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경제성장 전략과 정권에 대한 국내적 지지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생존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추구한 것이며, 따라서 대외안보위협을 제거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해나갈

19) 임수호는 공격적 현실주의 시각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가 주한미군 철수를 강제할 수도, 주한미군의 존재하는 상황에서 도발을 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20) Scott D. Sagan and Kenneth N. Waltz,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New York: Norton, 1995).

21) 구체적으로 냉전시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위협이 지속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소련과 군사동맹조약을 체결하여 안전을 보장받았고, 1970년까지는 한국의 핵프로그램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1991년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서 모두 철수되고, 한국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the Declaration for Denucleariz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Peace Construction)을 선언하며 197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주장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Etel Solingen, *Nuclear Logics: Contrasting Paths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7), pp. 119~120.

것으로 보았다.

체제생존모델(regime survival model)을 탈냉전기 북한의 국내적 상황에 적용하여 북한의 핵프로그램 추동 원인을 설명한 안문석(2011)도 1차,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할 당시 북한이 각각 고난의 행군 시기와 경제 관리 개선 조치 실패를 겪고 있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경제적 불안과 정권 약화와 같은 복잡한 국내 이슈가 핵프로그램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²²⁾ 북한에게 핵무기는 미국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내부 결속 및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 즉 체제 생존을 위한 정책인 것이다.

(3) 규범에 근거한 연구

규범 연구의 시각에서 핵무기 개발 결정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 및 반영하는 상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규범적인 인식과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²³⁾ 이 시각에 의하면, 국가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가 지도자의 냉철한 계산보다 국제 관계에서 어떠한 행위가 정당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규범과 공유된 신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시각에 의하면, 국가의 행동은 국가 지도자의 냉철한 계산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 국제 관계에서 어떠한 행위가 정당하고 적절한지에 대한 규범과 공유된 신념이 한 국가의 행동을 좌우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핵 보유 능력은 근대성(modernity)의 상징인 반면, 핵개발 규제(restraint in nuclear development)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국가의 의향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다.²⁴⁾

핵무기 추구와 관련된 신념 체계를 적대적 민족주의(Oppositional Nationalism)의 한 형태로 보는 입장도 있다. 하이먼스(Hymans, 2008)는 북한 신년사(1975년~2008년)에 대한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북한 지도층이 적대적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냈다.

22) Mun Suk Ahn 2011. "What Is the Root Cau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Vol. 38 Iss. 4 (December 2011), pp. 175~187.

23) Sagan·1996·pp. 55~56; pp. 73~76.

24) Mun Suk Ahn·2011.

이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탈냉전기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반응이 아닌 북한 지도층의 적대적 민족주의 성향에서 기인하는데, 경쟁국에 대한 두려움과 자국의 능력이 외부 위협을 압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적대적 민족주의자들은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주성과 힘을 표출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²⁵⁾ 즉,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냉철한 비용 편익 분석의 결과가 아닌 복합적인 심리적 욕구의 산물로 보아야 하며, 구공산권의 기밀해제 문건들이 냉전시대부터 이어져온 핵개발에 대한 북한의 갈망을 입증한다고 주장한다.²⁶⁾ 1980년대부터 더욱 극심해진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그 욕구를 더욱 자극시켰을 뿐이었다.

3) 기존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함의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담론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은 북한 핵담론을 구성하는 다양한 담론들이 나타난 배경과 담론의 구성 요소를 밝혀내고 핵담론을 통해 북한의 핵정책을 추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갑우(2015) 연구는 국가

25) 하이만스에 의하면 국가지도자의 “민족적 정체성 개념(national identity conception, NIC)”은 한 국가가 본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타자와 비교하여 얼마나 높이 자연스럽게 위치하는지에 대해 지도자가 가지는 기본적인 의식을 의미하며 민족주의(nationalism)와 적대주의(opposition)의 정도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적대주의적 민족주의는 적대주의와 민족주의 모두 높은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로, 전자는 경쟁 대상에 대하여 과도한 집착과 적개심을 드러내는 동시에 두려움(fear)을 형성하고, 후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pride)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는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이만스는 설명한다. 본 개념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Jacques E. C. Hymans, *The Psychology of Nuclear Proliferation: Identity, Emotions, and Foreign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의 2장과 Jacques E. C. Hymans, “Assessing North Korean Nuclear Intentions and Capacities: A New Approach.”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8 (2008), pp. 262~265.를 참조할 것.

26) 또한 1960년대 초반 북한은 소련과 중국이 핵개발에 성공한 이후, 핵기술지원을 요청하였다. Oberdorfer, 2001, p. 252.

들 간의 정체성 변수에 기반하여 북한의 핵담론이 모순적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를 성공적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인 관계가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정체성 변수만으로 북한 핵위협담론과 핵위협인식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북한 핵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북한 핵개발의 동인을 찾는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핵공격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과 이러한 위협인식을 야기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대표적으로 이재봉의 연구는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에 대한 위협이 북한의 핵개발 동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지적하기는 했으나 미국의 핵전략의 변화에 따른 북한의 위협인식 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안보모델을 반박하는 연구들은 북한이 지속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또는 안보 위협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제기하지만, 북한이 자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이먼스(2008)와 박종희 외(2015)는 텍스트 분석 자료로서 북한 신년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신년사는 정치·경제·대남·대외정책분야에 대한 평가 및 주요 정책방향들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북한정권의 정책변화를 추적하는데 중요한 자료이긴 하지만, 지면상의 제약으로 개별 이슈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한 예로 북한 신년사에서 핵관련 단어는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이 발생한 다음해인 1969년 신년사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핵추진항공모함과 원자탄에 대한 북한의 언급은 푸에블로 사건 이후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을 반영한다.²⁷⁾

한 예로 북한 신년사에서 핵관련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 해는 1969년으로 이는 푸에블로 납치사건 이후 미국의 군사적 대응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을 반영하고 보았다. 북한 신년사에 핵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북한이 얼마나 큰 위협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하지만, 로동신문은 이미 1940년대 후반부터 핵

27) 박종희 외,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Vol. 49, No. 2, (2015), pp. 45-46.

무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로동신문을 활용함으로써 북한 핵담론의 세밀한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한의 당기관지인 로동신문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여 북한의 핵담론이 미국의 핵전략과 깊게 연계되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더 나아가, 미국의 핵 선제공격 의도와 주한미군의 핵 공격능력이 북한의 핵위협인식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로동신문에 나타난 핵에 대한 언급 빈도수와 핵관련 단어의 사용방식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인식을 측정하는 새로운 변수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자료

1) 연구대상의 설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57년부터 1986년까지 북한 조선로동당에서 발간하는 『로동신문』에서 “원자” 또는 “핵”이란 단어를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 포함한 모든 기사이다. 1945년 11월 1일 ‘정로(正路)’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창간된 로동신문은 1946년 9월 현재의 이름으로 제호를 변경하였다. 로동신문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가 북한 인민들을 대상으로 로동당의 정책을 선전하기 위해 발간하는 만큼 당의 정책을 정확하게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로동신문은 북한 정권이 핵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로동신문을 활용하여 북한정권의 정책변화를 분석한 다량의 연구들은 북한연구에서 로동신문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시기를 1957년부터 1986년으로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로동신문에 핵 관련 기사는 1949년에 처음 등장했으나 본격적으로 핵무기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은 1957년부터이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는 핵무기와 관련된 기사는 연간 사십 건 미만이였다.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 문제가 논의

되기 시작한 1957년부터 핵무기와 관련된 기사가 연 간 백 건 가까이 게재되었고 북한이 핵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²⁸⁾ 따라서 핵위협담론이 나타나기 시작한 1957년 이후를 분석 시기로 설정하였다.

둘째,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착수한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체로 198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고 의견이 모아진다. 따라서 한 국가의 핵무기 보유는 해당 국가의 핵담론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기 전으로 연구시기를 제한하였다.

2) 분석방법

분석방법으로는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automated text analysis)을 활용하고자 한다.²⁹⁾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라고도 불리는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은 일반적으로 자연어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방대한 양의 비정형 텍스트로부터 언어 사용 패턴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작업을 의미한다.³⁰⁾ 인간의 유한한 능력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연구의 체계성·일관성·투명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이 주목받으면서 정치학계에서도 해당 방법을 활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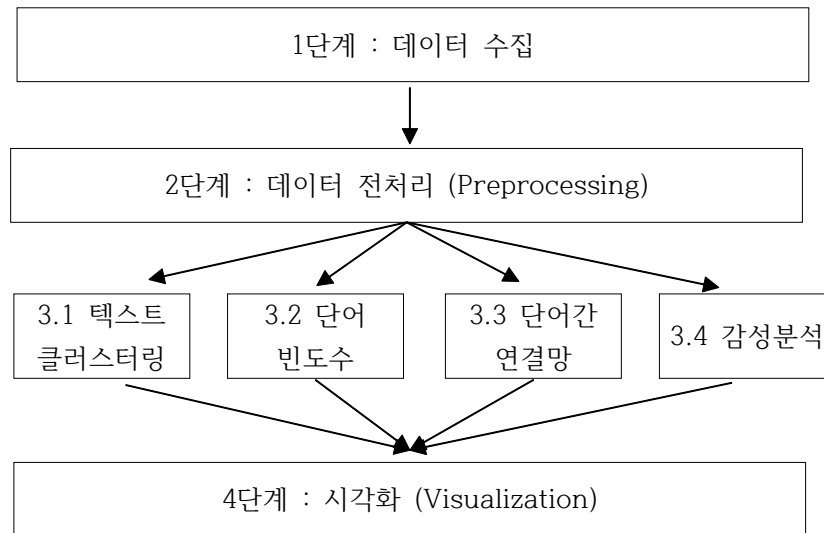
28) 1957년 이전의 등장한 기사들의 내용은 군비 축소 및 핵무기 금지에 관한 유엔 및 군비 축소 위원회 회의에 한정되었으며 핵무기는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주의진영 또는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표현됐다.

29) 정치학에서 텍스트 분석방법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Justin Grimmer and Gary King, "General purpose computer-assisted clustering and conceptualization,"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Vol. 108, No. 7 (2011), pp. 2643~2650.과 Justin Grimmer and Brandon M. Stewart,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Political Texts,1" *Political Analysis*, Vol. 21, No. 3 (2013) pp. 267~297.을 참고.

30) Fabrizio Sebastiani, "Machine learning in automated text categorization." *ACM Computing Surveys*, Vol. 34, No. 1, (2002), pp. 1-47.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의 절차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의 절차



데이터수집과정인 1단계에서는 전산을 통해 자동적으로 로동신문 기사내용을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관계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로동신문 데이터베이스(DB)에서 “원자” 또는 “핵”을 제목에 포함하는 기사를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수집했다.³¹⁾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지 않은 기간의 기사는 로동신문 인쇄물을 직접 읽고 “원자” 또는 “핵”을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 포함한 기사를 수집하였다.³²⁾

31)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살인무기”, “살인장비”, “현대적무기” 등과 같이 암묵적으로 핵무기를 의미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원자” 또는 “핵”을 포함하지 않는 단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32)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로동신문 검색엔진은 해당 키워드를 제목에 포함한 기사만을 보여준다는 점과 검색 엔진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필자는 일차적으로 제목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차적으로 로동신문 인쇄물을 직접 읽음으로써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저자가 데이터를 수집했던 2015년 상반기까지는 1961년 이후의 자료들만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시기는 직접 로동신문 인쇄물을 읽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기사 중 본 논문의 분석시기에 해당하는 기사는 총 2578건이다.

2단계인 데이터 전처리(preprocessing)에서는 수집한 기사들을 분석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실행하였다. 먼저 한국어 자연어 분석 패키지인 KoNLP (전희원, 2016)을 이용하여 노동신문에 등장한 단어를 형태소별로 분류한 다음, 접속사, 특수문자와 같이 분석에 무의미한 형태소를 제거하고 명사만을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전처리된 자료들을 연도별로 분류하여 각 연도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하나의 문서(document)로 저장하였다. 그 결과 연구시기에 해당하는 1957년부터 1986년까지 총 30개의 문서가 생성되었다. 이 문서가 텍스트 분석을 위한 분석단위(unit-of-analysis)이다.

3단계에서는 전처리된 텍스트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각각 진행한다. 거시적 분석으로는 기사 게재 빈도수 분석, 클러스터링 분석, 단순 빈도수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북한 핵담론의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핵 관련 기사의 연간 게재 빈도수와 텍스트 클러스터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핵 관련된 기사의 게재 빈도수와 노동신문의 핵문제에 관한 기사 게재 빈도나 분량은 북한 당국의 핵문제에 대한 관심, 해당 시기 정책에서 핵문제가 차지하는 비중 정도를 반영한다. 다음으로 문서 간 상관성을 기반으로 유사한 내용의 문서들을 군집화하는 텍스트 클러스터링(text clustering) 기법을 활용했다. 텍스트 클러스터링이란 문서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유사한 문서들을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때 문서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기본 단위는 각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이며 문서 내에 등장하는 단어들 간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같은 집단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같은 집단으로 분류된 문서들은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년 동안 발행된 노동신문 기사들을 하나의 문서로 간주하여 클러스터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분기점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핵 관련 어휘들에 대한 단어 빈도수 분석을 실시하여 시기별 핵심 단어들을 분석했다.

거시적 분석을 통해 북한 핵담론의 수사상에 분기점이 있는지 확

인한 후, 구체적인 내용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앞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론의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로 미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북한 해당론의 수사상의 변화를 보다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 원자 또는 핵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만을 추출하여 단어 간 의미연결망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실시하였다.³³⁾ 단어 간 의미연결망 분석은 한 자료 안에서 동시에 등장한 주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한 자료 내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를 확인하고 단어들 간의 연결 관계를 포착함으로써 개별 단어들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지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석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핵”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주 사용된 단어들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핵위협에 대한 북한정권의 인식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감성분석이란 문서의 주제에 대한 작성자의 태도(attitude)를 분석하는 작업으로 일반적으로 긍정 혹은 부정, 찬성 혹은 반대, 호감 또는 비호감 등의 태도를 추출하며,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이나 선거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감정을 파악하기 위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핵 위협은 “비핵 국가가 핵 국가와 적대적 관계일 때 느끼는 심리적 상태”로 본 논문에서는 외부로부터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두려움을 핵 위협인식으로 규정한다 (구갑우, 2014). 핵위협인식의 증감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골드스타인(J.S. Goldstein) 갈등·협력지수를 참고하였다. 골드스타인 갈등·협력지수는 61개의 World Events Interaction Survey Events (WEIS Events) 종류마다 국가 간의 갈등·협력양상을 측정할 수 있는 지수를 제시한다. 골드스타인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남가주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의 8명의 국제관계학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각 Event Data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서수적인 갈등·협력지수를 만들었다.³⁴⁾ 골드스타

33) 원자 또는 핵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문장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핵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단어들을 분석에서 제외하기 위함이다. 핵문제를 다룬 기사라고 할지라도 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이슈들을 동시에 언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의미한 단어들을 제거하기 위해 원자 또는 핵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만을 분석하였다.

인 갈등·협력지수는 최고의 협력적 상호작용인 +8.3부터 최고의 갈등적 상호작용인 -10.0까지 걸쳐 있는데, 골드스타인 지수에 의하면 두 국가 간에 가장 부정적인 이벤트는 군사 공격(military attack), 무력 충돌(clash), 그리고 공격(assault)이며 가장 협력적인 이벤트는 군사원조 제공(extend military assistance)이다.

본 논문에서는 골드스타인 지수를 토대로 핵위협인식의 강도를 네 단계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군사 공격(military attack), 무력 충돌(clash) 및 공격(assault)에 속하는 단어들을 ‘매우 강함’으로, 군사 동원 및 훈련 (armed force mobilization, exercise, and display)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강함’으로, 구체적인 군사 위협 (threat with force specified)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조금 강함’으로, 마지막으로 핵무기 종류에 해당하는 단어들과 핵무장은 그 자체로 위협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분류하였다. 단어들을 위협의 단계별로 분류한 후에는 시간에 흐름에 따른 단어들의 빈도수를 분석하여 핵공격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의 증감을 살펴보았다.

4.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를 나타냈는지 논의하기 위한 기초로서 미국 핵전략과 한반도 핵정책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미국의 핵전략이 매 행정부마다 새롭게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시기에 해당하는 아이젠하워 행정부부터 레이건 행정부까지의 핵전략을 검토하고,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 배경, 목적, 배치 실태 및 결정 과정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냉전기 북한의 핵담론의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4장에서는 앞선 3장에서의 분석

34) J. S. Goldstein,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6 (1992), pp. 369~385.

을 바탕으로 북한의 핵위협담론을 네 개의 시기로 구별하고 각 시기별 핵위협담론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특징을 살펴본다. 이와 함께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미국의 핵 선제공격 의도와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 보유 여부에 따라 북한의 핵위협인식이 크게 영향을 받았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후 북한의 핵위협인식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에 대하여 종합결론을 내리며, 연구의 의의와 한계 및 후속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다.

II. 냉전기 미국의 핵전략 및 한반도 핵정책 전개 (1953~1986)

본 연구는 북한의 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 원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북한의 핵위협인식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본 장에서는 냉전기 미국의 핵전략 및 한반도 핵정책의 수립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의 핵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냉전기 미국의 핵전략은 미소 간 군사적 경쟁의 정치적·군사적 산물로서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과 경제·안보 문제, 동맹국들의 입장, 핵무기 기술 발전 상태와 국내 정치적 요인 등의 요소에 의해 변천을 겪었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검토시기에 해당하는 아이젠하워 행정부부터 레이건 행정부까지 각 행정부별 핵전략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검토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 배경, 목적, 배치 실태 및 결정 과정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핵무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으며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행정부별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아이젠하워 행정부 (1953-1961)

1949년 8월 소련의 핵실험 성공은 미국의 핵독점기의 종식과 함께 미국으로 하여금 대외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냉전기 전략가인 조지 케넌(George F. Kennan)에 의해 창안된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은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무력 수단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권의 세력 팽창에 대항하고자 했다. 케넌은 미국의 대(對)소련정책은 “소련의 팽창주의적 경향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인내심 있는, 그러나 강력하고 결코 방심하지 않는 봉쇄정책이어야 한다(the main element of any United States policy toward the Soviet Union must be that of long-term, patient but firm and vigilant

containment of Russian expansive tendencies.)”한다고 주장하며 군사력이 아닌 경제발전을 통한 소련의 세력 확장을 방지할 것을 강조하였다.³⁵⁾

이러한 케넨의 주장은 미국의 핵 독점에 기반하고 있었다.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라는 암호명으로 비밀리에 추진되어 왔던 원자폭탄 개발이 1945년 8월 결실을 맺고, 얼마 뒤 트루먼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리틀 보이(Little Boy)’와 ‘팻 맨(Fat Man)’을 투하를 명령하면서 핵무기의 파괴력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 1949년 8월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기 전까지 미국은 오랜 시간 핵무기를 독점함으로써, 소련보다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력 증강을 통한 대소봉쇄가 필수적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미국의 핵독점 상황에서 미국은 미국 본토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자유로웠기 때문에 봉쇄정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련이 미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본토가 소련의 잠재적 핵 선제공격의 위협에 노출되자 미국은 더 이상 봉쇄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핵 보복을 통한 전쟁 억지력이 작동하리라는 보장이 불확실해진 상황에서 미국은 오히려 재래식 무기면에서 열세에 처하게 되었다. 핵무기의 억지력을 기반으로 군사력 감축을 실시한 미국과는 달리 소련은 미국의 핵 위협을 상쇄하기 위하여 재래식 병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여 왔던 것이다.

1950년 트루먼 대통령(Harry S. Truman)은 국가안전보장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이하 ‘NSC’로 약칭)로 하여금 소련의 핵능력을 고려하여 미국의 국가적 목표와 대응 방안을 재검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 결과 작성된 문서가 『미국의 안보 목표와 프로그램(NSC-68: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이하 ‘NSC-68’로 약칭)』이다. 「NSC-68」은 1948년부터 소련의 핵실험 이후인 1950년 봄까지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전략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이미 소련은 핵무기를 운반할

35) X (George Kenne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XXXV, No. 4 (1947): 566-582.

수 있는 비행 수단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수소 폭탄 개발에도 성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만약 소련이 미국보다 빨리 수소 폭탄 개발에 성공한다면 자유진영세계와 미국에 대한 소련의 공격 위험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CIA와 국무부 및 육·해·공의 정보기관들이 참여해 작성한 문서에 의하면 1954년 중반에 이르면 소련이 약 200개의 핵무기 비축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본토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³⁶⁾

이러한 위협 평가를 바탕으로 작성된 「NSC-68」은 대대적인 군비증강과 핵전력 강화 및 동맹 강화, 그리고 효과적인 국제 제도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소련의 핵 선제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쟁 억지와 전쟁 발발 시 보복 공격의 효과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에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질적·양적 강화를 제안하였다. 더욱 중요한 점은 「NSC-68」이 미국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선언을 배제한 것이다. 「NSC-68」의 입안자들은 소련이 미국에게 선제공격을 가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핵무기 의존정책을 유지해갔다.³⁷⁾ 하지만 「NSC-68」은 핵무기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으며, 여전히 핵무기는 최후수단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1950년 4월 7일, 과도한 국방비 지출에 부담을 느꼈던 트루먼은 「NSC-68」 승인을 유보했지만, 그 해 6월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3개월 뒤 「NSC-68」을 공식 승인하고 대대적인 군비증강을 추진하게 된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소련 정책이 보다 강경한 노선으로 선회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봉쇄정책의 맹점이 드러났다. 첫째, 봉쇄정책은 문자 그대로 소련의 세력 확장을 ‘봉쇄’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지 못하고 소련의 행동에 대한 너무 수

36)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Report 68, April 12, 1950, p.20, p.38, p.60
https://www.trumanlibrary.org/whistlestop/study_collections/coldwar/documents/pdf/10-1.pdf (최종검색일: 2016년 11월 일)

37) 정성화·1999.

동적으로 대응하도록 구상되었다고 비판을 받았다. 봉쇄정책에 따르면 공산권 국가들은 그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위기국면을 시작할 수 있는 반면, 미국은 군사위기 상황에서 선택지가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한 예로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 국가들은 그들이 원하는 장소-한반도-에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재래식 무력-으로 선택하였으나 서방 국가들은 그들 스스로 공산주의 국가들이 정해놓은 범주 이상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다. 가령 미국은 한반도를 벗어나 전쟁을 확대시키는 것과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으로부터 어떠한 유익도 얻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산권의 재래식 전력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제에 상당한 압박을 주었다.³⁸⁾

이러한 비판들은 1953년에 출범한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 행정부에 의해 수용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전임자인 트루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소련의 팽창주의 봉쇄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봉쇄에 성공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대, 튼튼한 동맹(robust alliances), 그리고 효과적인 국제 제도(effective international institutions)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였지만, 소련과의 장기간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아이젠하워는 과도한 지출과 세금이 미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였다.³⁹⁾ 그 중에서도 미국 전체 국가예산지출 총액 대비 60%를 넘게 차지하는 과도한 국방비 지출이 문제였다. 「NSC-68」과 한국전쟁의 결합으로 인해 1950-1953년 사이 국방비가 3배 이상 증가하였던 것이다.

아이젠하워는 미국이 더 이상 현재 수준의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

38) Lawrence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London: Macmillan, 1989).

39) NSC 162/2 stated that the United States needs to maintain "a strong military posture, with emphasis on the capability of inflicting massive retaliatory damage by offensive striking power", an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sider nuclear weapons as available for use as other munitions." Eisenhower 1963; NSC 162/2.

고 판단하고 임기 초기 국방 정책 검토 후, “안보와 지불 능력(security and solvency)”을 중심으로 한 뉴룩 정책(New Look)을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으로 채택했다. 국방비의 감축은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핵무기의 억지 능력과 즉각적인 대량보복 위협을 이용해 재래식 군대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군비 지출을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NSC 162/2, p.11). 1954년 1월 7일, 의회에서 발표한 연두교서(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에서 아이젠하워는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겠다고 밝히며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강화되었음을 시사했다.⁴⁰⁾ 핵무기를 외교적 수단으로만 사용할 뿐 군사적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꺼려했던 트루먼과 달리 아이젠하워는 핵무기의 군사적 역할을 대폭 확대하였다.⁴¹⁾ 트루먼에게 핵무기가 ‘최후의 수단(last resort)’이었다면 아이젠하워에게는 ‘최초의 수단(first resort)’였던 것이다.⁴²⁾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새로운 핵전략은 1월 12일 국무장관 덜레스가 뉴욕의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에서 발표하며 공식화되었다. “대량보복정책(massive retaliation)”이라고 알려진 이 전략은 적의 선제공격에 대항하여 즉각적이고도 대규모적인 핵공격을 실시함으로써 적의 공격을 사전에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었다.⁴³⁾

40) “First, while determined to use atomic power to serve the usages of peace, we take into full account our great and growing number of nuclear weapons and the most effective means of using them against an aggressor if they are needed to preserve our freedom.” Annu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the State of the Union, January 7, 1954

41) 한국 전쟁 당시 아이젠하워는 심각하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하였으며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미국의 발언이 한국 전쟁의 종결을 앞당겼다고 믿었다.

42) 박건영, “핵무기와 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 미래,”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1호 (2011년 봄), pp. 1~45.

43) 1월 12일 국무장관 덜레스는 뉴욕의 외교위원회에서 행한 “외교정책의 진화”라는 연설에서 대량보복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미국의 안전은 “우리가 선택하는 장소와 방법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마치 미국이 모든 위협에 대하여 대규모적인 핵공격을 실시하겠다는 인상을 주었으나 이는 실제 NSC 162-2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덜레스는 1954년 4월 Foreign Affairs에서 기고한 기사에서 대량보복정책이 무조건적인 핵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핵공격은

구체적으로 핵무기와 공군력의 증강을 통해 소련과 중국의 공격을 억지하는 한편 지역 동맹국들과 비밀 첩보 활동에 의존하여 지상에서의 공산주의의 전진-특히 유럽에서 막강한 지상군을 자랑하는 소련-에 대응할 수 있다고 믿었다.⁴⁴⁾ 동시에 위기 상황 발생 시 미국의 즉각적 개입을 약속함으로써 미국의 안보약속에 대한 NATO 국가들의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었다.⁴⁵⁾

미·소간에 냉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아이젠하워 행정부가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의 대소 핵 우위라는 국제정치적 현실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소련이 핵실험에는 성공하였지만 당시 미국은 핵전력과 기술 분야에서 소련에 비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대량의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소련의 전쟁 의도를 억지 억지하는 동시에 재래식 무기와 군 병력의 축소가 가능하다는 관점을 견지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핵 우위를 최대한으로 이용해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려는 대량보복정책은 50년대의 대소 핵정책으로 확고히 수립되었다.⁴⁶⁾

그러나 대량보복정책을 추진한 결과, 미국은 재래식 군비를 감축하여 국방예산을 많이 줄이는데 성공하였으나, 미국의 핵전력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의 숫자는 1953년 1000개에서 1961년 18,000여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미소 간에 핵 경쟁을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케네디 행정부 (1961-1968)

1961년 출범한 케네디 행정부는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미국이 가진 여러 옵션 중 하나라고 해명하였다. Dulles, 1954.

44) Dulles, 1954; Gaddis, 2005, pp. 125~161/

45) Dulles, 1954.

46) Charles R. Morris, *Iron Destinies. Lost Opportunities: the Arms Race Between the U.S.A. and the U.S.S.R. 1945~1987* (New York: Harper & Row, 1992), p. 120.

Strategy)에 기초한 핵전략을 수립했다. 상원의원 시절 대량보복전략이 가지는 맹점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던 케네디는 취임 직후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핵전략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케네디에게 소련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전면핵전쟁(all-out nuclear war)은 극단적인 상황을 아닌 대부분의 상황에선 지나치게 과격한 대응 방법으로 보였다. 만약의 경우, 케네디는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의 대안 부재의 상황에 몰리는 것을 원치 않았다.

대량보복전략의 대안으로 케네디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테일러(Maxwell D. Taylor)가 고안한 ‘유연반응’이란 개념에 주목했다. 테일러는 그의 저서 『불확실한 트럼펫(The Uncertain Trumpet)』에서 핵무기로 모든 전쟁을 억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래식전력을 확충하여 규모가 작은 국지전부터 전면전까지 모든 종류의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복수(複數)의 대응 옵션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⁷⁾ 테일러의 주장에 매료된 케네디 대통령은 1961년 3월 의회에서 ‘유연반응전략(flexible response strategy)’이라 불리는 새로운 핵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는 복수의 옵션은 확전의 위험이나 대안 부재의 상황에 몰리는 일 없이 적당한 양의 무력을 적당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저강도 옵션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주고, 따라서 핵무기 사용의 가능성을 실제로 높임으로써 대량보복전략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옵션과는 대조적으로 억지의 신빙성을 더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 다른 한편, 케네디의 새로운 핵전략은 핵무기를 사용해야만 하는 단계 이전에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갖고자 하는 그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었다.⁴⁸⁾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임계점(threshold)’을 높이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적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더 이상 선제공격의 위협에 의존하지 않는 유연반응전략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전쟁 독트린과 갈등을 야기했다. 1962

47) Maxwell D. Taylor, *The Uncertain Trumpet*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0).

48) 박건영, 2011, p. 10.

년 5월 NATO 장관회의에서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전쟁 초기 소규모의 핵무기를 사용해도 국가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NATO차원에서 핵의 역할을 소련의 핵전쟁 시작을 억지하고, 재래식 전쟁에 승산이 없을 때 상대로 하여금 전쟁을 끝내도록 설득하기 위한 최후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⁴⁹⁾ 이처럼 전술핵의 사용을 최대한 제한함으로써 미국은 선제핵공격을 준비할 의도가 없다는 확신을 소련에게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NATO 회원국들은 이러한 미국의 정책 전환이 유럽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를 분리(decoupling)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확장억지를 통한 NATO 회원국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에 대해 의심을 제기하였다. 이 때문에 NATO 동맹국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NATO는 1967년에서야 유연반응전략을 NATO의 공식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1960년대 들어 소련이 핵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미국과 소련의 핵전력은 점점 차이가 좁아졌고, 미·소 모두 선제공격으로 상대의 핵전력을 압도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누구든 먼저 선제공격을 가하면 상대국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핵무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아닌 핵전쟁의 파괴성을 강조함으로써 핵무기 사용 자체를 억지할 수 있는 전략을 고안할 필요성을 느낀 맥나마라는 전쟁의 억지에 방점을 둔 확증파괴(Assured Destruction) 개념을 채택하였다. 확증파괴는 미국이 소련의 “선제핵공격을 흡수한 후에도 도발국가들에게 수용하기 힘든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명백하고 확고한 능력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이나 그 동맹국에게 의도적으로 핵 공격을 가하는 것을 억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⁵⁰⁾ 이러한 개념은 1960년대 이후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Strategy, MAD) 전략로 발전하였는데, 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도자라면 미소 간의 공멸을 초래할 선제핵공격을 실시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에 기반한 ‘공포의 균형’

49) Robert McNamara, “The Military Role of Nuclear Weapons: Perceptions and Misperceptions,” *Survival*, Vol. 25, No. 5 (1983), pp. 261~271.

50) Enthoven and Smith, *How Much is Enough?: Shaping the defense program, 1961-1969*. (Rand Corporation, 2005). p. 174.

의 유지를 의미했다. 또한 MAD 전략은 미·소가 서로에 대한 확증파괴능력, 즉 2차 공격력을 갖추었다는 것과 미·소관계가 “전략적 균형(strategic parity)”을 이루었음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전략적,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3. 닉슨·포드·카터 행정부 (1969-1979)

1969년 취임한 닉슨 대통령은 상호확증파괴전략과 유연반응전략이 내포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닉슨 행정부가 출범한 시점에는 미·소 간 핵 균형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소련이 강력한 2차보복능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확증파괴전략이 전제하는 상호 취약성에 기반한 위협은 신뢰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미국이 소련의 공격에 대응해 즉각적으로 대량적인 대응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소련이 생존한 핵무기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닉슨 행정부의 국무장관이었던 헨리 키신저(Henry A. Kissinger)는 상호 파괴 자체가 가지는 비합리성과 도덕적 부담으로 인해 확증파괴의 위협은 “사용가능하지 않고(not employable)” 적에게도 위협의 신뢰성이 결여된다고 보았다.

닉슨 역시 소련이 미국 본토에 핵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이 사실상 대량보복에 가깝다는 점에 불편함을 느꼈다. 비록 아이젠하워 행정부에 비해 핵전쟁에 작전계획의 옵션이 다양화되긴 했지만 닉슨 행정부가 취할 수 있는 미국의 반격의 강도는 여전히 거대했다(massive). 따라서 억지가 실패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고, 닉슨은 적의 도발의 성격과 수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의 필요를 강조하였다.⁵¹⁾

4년간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닉슨 행정부는 새로운 핵전략의 주

51) Richard M. Nixon,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for the 1970s* (18 February 1970), pp.54-55.

요 내용을 포함하는 「국가안보결정비망록-242호(National Security Decision Memorandum-242, NSDM-242)」를 발령했다. 1974년 1월 미 국방장관 슬레진저는 소련에 대한 미국의 공격용 핵무기의 우위를 근거로 제한적 핵전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른바 슬레전저 독트린(Schlesinger Doctrine)으로 불리는 새로운 핵전략을 발표하였다. '선택성(selectivity)'과 '유연성(flexibility)'를 강조한 슬레전저 독트린은 미국이 소련보다 높은 수준의 공격용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종류의 제한적 핵옵션을 추가함으로써 역지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면적 전쟁으로의 확전(escalation)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⁵²⁾ 제한적인 핵공격의 목표물 설정은 상대방에게 반드시 대량파괴를 가할 필요 없이, 상대방이 도발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대응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면에서 미국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재래식 방어가 실패할 경우 핵무기 선제사용의 옵션을 열어둠으로써 미국이 제기하는 위협의 신빙성을 제고하여 유효한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의도했던 목표물만 공격함으로써 불필요한 부수적인 피해와 전면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상호확증파괴와 달리 슬레전저 독트린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를 선제 사용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인터뷰에서 슬레전저는 미국의 핵전력과 유럽의 안보를 결합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동맹국들의 안보 강화가 새로운 핵전략을 수립하게 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슬레전저는 기습선제공격을 통한 전쟁 개시와는 분명한 차이를 두면서도, 동맹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핵선제사용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

52) Press conference of U.S. Secretary of Defense James R. Schlesinger, 10 January 1974, at the National Press Club, Washington, D.C., reprinted in P. Edward Haley, David M. Keithly, and Jack Merritt, eds., *Nuclear Strategy, Arms Control, and the Future* (Boulder: Westview Press, 1985), pp. 99~100.; James R. Schlesinger, *Annual Defense Department Report, FY 197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http://history.defense.gov/Portals/70/Documents/annual_reports/1975_DoD_AR.pdf?ver=2014-06-25-150705-323) 검색일: 2016년 12월 18일.

법으로 핵무기를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케네디 행정부와 달리 닉슨 행정부는 핵공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카터(James Carter)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1977년 1월, 미소 간 군사 균형에 불안정한 기류가 발생하였다. 소련이 공격·방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하였고, 소련의 다탄두 개별 유도(Multiple Independently-targetable Re-entry Vehicles, MIRV) 대륙간탄도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완성하고 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스탈린저 독트린이 기반한 미국의 핵우위가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미·소가 동등한 2차 공격능력을 보유한 상황에서 소련의 대무력(counterforce)전력의 증가는 미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또다시 ‘미국의 안보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에 직면하였다.

1977년 8월, 카터 행정부는 NSDM-242호를 한시적으로 승인하는 동시에 핵전쟁 목표물 설정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 명령을 지시했다. 1980년 6월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지령 59호(Presidential Directive 59)」로써 ‘상쇄전략(countervailing strategy)’을 채택하였다. 상쇄전략의 핵심 목표는 소련 정부에게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나면 미국과 소련 모두 군사목표·정치중추·공업시설·교통시설 등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상호 자살행위가 되어 핵전쟁에서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적의 도발을 억지하는 것이었다.

「대통령 지령 59호」로 인한 주요한 변화 중 하나는 대무력타격 옵션에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의 핵전략은 이미 맥나마라와 스탈린저가 주도하던 시절부터 대무력타격을 미국의 핵공격 목표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소련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증가와 ICBM의 질적 강화로 미국의 대무력타격 능력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전체 핵탄두량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앞서고 있었지만, 미사일 발사장치, 그 중에서도 ICBM 보유량 면에서는 소련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 전력에 맞서기 카터 행정부의 국방장관인 해롤드 브라운(Harold Brown)의 주도 하에 미국은 미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추구하는 상쇄전략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카터와 레이건 행정부에서 엠엑

스(MX) 미사일 개발, 스텔스 항공기 개발, C4ISR 체계 도입, 핵전쟁에 대비한 독립 네트워크 구축,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 개발 등 미국의 대무력타격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었다⁵³⁾.

카터 행정부가 대무력전략을 재강조한 이유는 역지에 실패할 경우 소련이 장기전에서 싸울 수 있는 계획 및 무력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피해를 저감하는 것보다 소련의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전쟁의 역지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4. 레이건 행정부 (1980-1986)

1980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란 슬로건을 내세운 레이건 대통령은 1970년대를 미국의 자위력 관리 노력이 게을렀던 “방기의 10년(decade of neglect)”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사상 최대의 군비증강을 도모하였다. 레이건의 강한 국가 건설은 미국의 핵군비 증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레이건 행정부가 핵군비 증강을 추진했던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련의 기술 발전에 따라 전략무기 중 지상발사 ICBM이 취약해졌다. 둘째, 소련의 선제공격 시 미국 전략무기의 생존율을 높여 보복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셋째, 특히 3차 공격을 위협함으로써 2차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1981년 레이건 행정부는 이른바 ‘별들의 전쟁(Star Wars)’이라 불리는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을 제시했다. 전략방위구상이 계획은 근본적으로 핵무기를 “무력화하고 쓸모없게(impotent and obsolete)”하게 만들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MAD는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옵션이고, 전략방위구상의 구축은 미국이 핵공격에 취약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핵전쟁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는 논리

53) Sagan, 1990, p. 53.

였다. 이에 대해 비평가들은 미국의 당시 기술수준이 전략방위구상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고, 소련이 핵탄두 수를 증가시킬 것이며, 소련 역시 MD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핵군비경쟁으로 이어져 미국의 안보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전략방위구상의 표적인 소련과 레이건 비평가들은 전략방위구상을 평화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공세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레이건은 이와 같은 비판을 수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더 많은 양의 재정을 투자하고자 하였다.

5.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 전개

1953년 출범한 미국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급격하게 불어난 국방비의 감축과 재정균형정책을 제1의 과제로 내세운 ‘뉴룩 정책(New Look)’을 발표하였다. 뉴룩 정책은 대량보복전략을 통해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해외 주둔군을 감축하고 국방비를 줄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던 주한미군의 감축이 검토되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경비 또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13항 ㄱ목을 위배하는 행위였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제 2조 13항 ㄱ목(영문으로는 13d 항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국 경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어오는 것을 정지한다. 단 정전기간에 파괴, 파손, 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같은 성능과 같은 류형의 물건을 1대 1로 교환하는 기초 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러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은 오직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을 경유하여서만 한국으로 들여올 수 있다.... 중립국 감독 위원회는 그의 중

립국 감시소조를 통하여 본 정전협정 제43항에 열거한 출입항에서 상기의 허가된 작전비행기, 장갑차량, 무기 및 탄약의 교체를 감독하여 시찰한다.⁵⁴⁾

따라서, 주한미군과 유엔군사령부는 한국에 핵무기를 도입하기 위해 남한에서 무기 도입을 감시하던 중립국 감독위원회 감시위원들을 1956년 6월 추방하였고, 이듬해 5월 14일 덜레스 국방장관은 한반도에 “현대적이며 효과적인 무기(more modern, more effective weapons)”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을 밝혔다.⁵⁵⁾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957년 12월 핵무기의 한반도 배치를 최종 재가하였다.⁵⁶⁾

그러나 북한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1958년 1월 전술핵무기인 핵지뢰(atomic demolition munitions)와 라크로로스 핵미사일(MGM-18 Lacrosse)이 배치되었다.⁵⁷⁾ 어니스트 존(Honest John) 핵미사일과 280mm 원자포가 한국에 배치되었다.⁵⁸⁾ 주한미군 8군 산하의 7사단도 핵전쟁수행능력에 강점을 둔 펜토믹사단으로 개편되었다. 개편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인 ‘설편 연습(Snowflake)’이 실시되었다. 당시 미제일군단사령관이며 동 연습지휘관인 아서 G. 트루도(Athur G. Trudeau) 중장은 핵전쟁 상황에서 주한 UN군의 공격력과 기동성을 시험하기 위해 모의원자무기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훈련의 공격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⁵⁹⁾

54) Department of State, 1993, p.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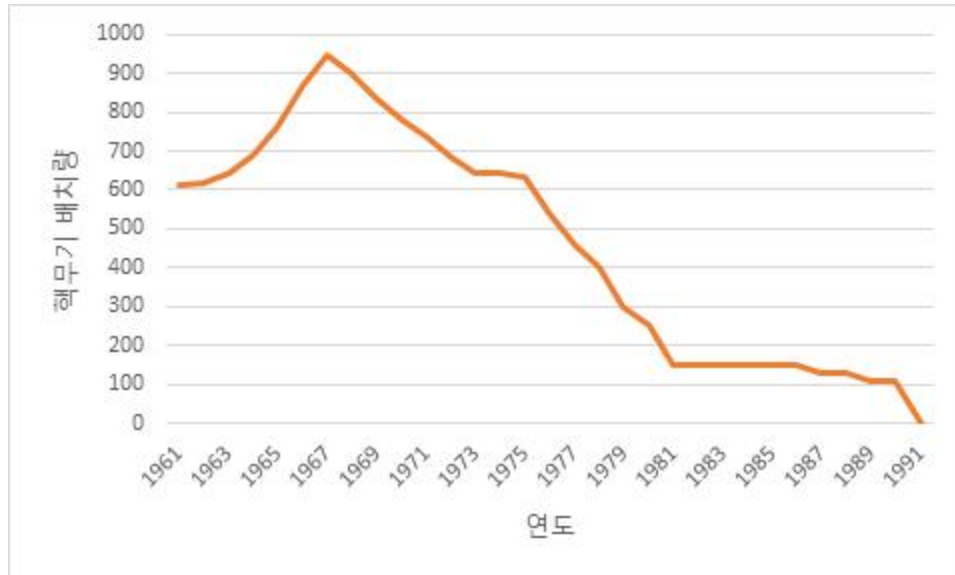
55) Dulles, 1956, p. 898.

56) Office of Historian 1993, pp. 303-309, pp. 366-367.

57) Norris et al, 1999, p. 30;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1978.

58) 1958년 1월부터 핵 대포와 어니스트 존이 한국에 배치됐고 이듬해에는 사정거리 1100킬로미터의 마타도르(Matador) 핵 순항 미사일도 배치됐다. 이후 미국이 핵무기의 수와 종류를 늘려나간 결과 1970년대 중반에는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가 1000개에 육박했다. 그러다가 카터 행정부의 등장 이후 그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1991년 부시 행정부가 전술 핵무기 철수를 선언할 때까지 100개 정도의 핵무기가 남아 있었다. 정옥식·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9), pp. 107~114.

59) 『동아일보』, 1958년 1월 9일.; 『경향신문』, 1958년 1월 19일.



<그림 3> 한국의 핵무기 배치량 (1961 - 1991)

出處: Norris, “United States Nuclear Weapons Deployments Abroad, 1950-1977,” History of the Nuclear Age Dinner Series, November 30, 1999, p. 19.; Kristensen,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September, 2005, <http://www.nukestrat.com/> (최종 검색일: 2016년 4월 20일). 두 개의 문서를 참고하여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량을 표로 작성하였다. 61년 이전에도 배치가 시행되었으나 데이터가 없어 그래프에서 제시하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그림 3>은 미국이 1961-1991년에 이르는 시기에 한국에 배치한 핵무기 양의 변화를 보여준다. 한국에는 1957년 12월에서 늦으면 1958년 1월에 핵무기가 처음으로 배치되었다. 위 그림을 살펴보면, 1961년부터 1964년까지는 핵무기가 미미하게 증가하다가 1965년부터 보다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1967년에는 최대치인 949개가 배치되었다. 그러다가 1968년부터는 배치량의 감소가 시작되었다.

주한미군의 핵무기량의 감소는 베트남전쟁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미국이 베트남전에서의 개입 축소 결정과 함께 아시아에서 발을 빼려 한 것과 연계되어 있다.⁶⁰⁾ 구정 공세의 발발 이후 미국 베트남전쟁에 대한 미국 국내 여론의 악화로 당시 대통령이던 존슨의 입지가 심각하게 축소되었고, 이에 따라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도 베트남전에 대한 전쟁 개입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1968년 3월 31일의 연설에서 존슨 대통령은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을 제한하고 북베트남과의 실질적인 평화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음해 베트남전에서 베트남전쟁의 종결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닉슨 대통령은 1969년 7월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외교 정책인 ‘닉슨 독트린’을 선포하였다. 닉슨 독트린이란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일은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처리해야 하며 미국은 향후 베트남 전쟁처럼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정책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70년 7월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남한 정부에 통보하고 1971년 3월 1개 사단을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에 배치된 핵무기들도 함께 검토되었다. 미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베트남 전쟁이 축소 국면에 도달한 이후, 공산주의 강대국과의 충돌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이와 함께 미국이 아시아에서 느끼는 위협이 감소하면서 아시아에 불필요하게 많은 양의 핵무기가 배치되어있다는 지적이 수용되면서 결국은 아시아 핵무기의 배치량 감소가 결정되었다.⁶¹⁾

한편, 남한은 미국이 이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1974년 10월 프랑스와 원자력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5년 4월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하자, 남한 정부는 1975년 5월 미국이 핵우산을 철수하면 남한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6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

60) 베트남 전쟁의 전개가 미국의 위협인식과 아시아 핵무기 배치에 미친 영향을 논의한 문헌으로는 정상미, *미국의 아시아 핵무기 배치(1964-1968): 베트남 전쟁의 전개와 위협인식의 변화*,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를 참조.

61) 정상미, 2013, p.90.

국이 핵우산을 철수하면 핵무기를 포함해 우리 생존을 보장할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 받기 위한 일종의 ‘벼랑끝전략(brinkmanship strategy)’을 구사했던 것이다.

III. 냉전기 북한의 핵담론 전개 (1957-1986)

앞서 2장에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부터 레이건 대통령까지 미국 행정부의 핵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북한 핵담론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노동신문에 나타난 핵문제에 대한 보도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척도였다고 할 수 있으며, 핵과 관련된 단어의 사용방식은 핵에 대한 북한정권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신문에서 핵 관련 기사 및 핵 관련 단어의 사용 방식을 통해 북한 핵담론의 전개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 언급 기사의 빈도수 분석과 내용 분석을 통해서 핵에 대한 북한정권의 인식이 크게 세 개의 분기점을 기준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북한 핵담론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

1) 핵관련 노동신문 기사 게재 빈도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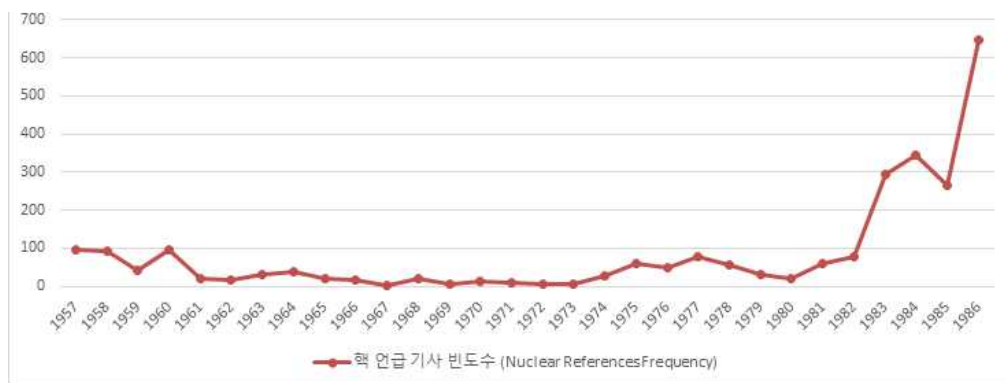
〈그림 4〉은 1957년부터 1986년까지 “원자” 또는 “핵”을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 포함한 노동신문 기사의 연도별 빈도분포를 꺾은선 그래프로 그린 것이다.⁶²⁾ 그래프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핵에 대한 북한의 관심도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57년에 들어서면서 북한 노동신문에서 핵 관련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100건에 달하는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1960년까지 지속되었다. 핵문제를 다루는 기사들은 1960년 초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 꾸준히 게재되긴 하였으나 1950년대 후반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1974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62) “핵”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만, ‘핵심’과 같이 핵문제와 연관이 없는 단어들만 등장한 경우, 빈도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핵문제를 언급한 기사 빈도수가 또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추이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1970년대 후반 다소 감소했던 빈도수는 1981년에 소폭 증가하더니 1983년과 1986년에 두 차례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리하자면, 핵문제를 언급한 기사는 1950년대 후반에 갑작스레 증가하였으나 1961년부터 그 빈도가 떨어졌다가 1974년부터 또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1980년대 초반에 급증하였다.

정리하자면, 로동신문에서 핵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 받은 시기는 1957년~1960년, 1974년~1979년, 1995년부터 1960년까지 로동신문은 핵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으나 1961년부터 1973년까지는 핵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4년에 들어서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1986년에 가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원자” 또는 “핵”을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 포함한 로동신문 기사의 연간 빈도수는 핵에 대한 북한의 관심 척도를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단순히 기사 수가 많다고 해서 관심이 증가했다고 단정 짓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맥락에서 핵문제를 다루었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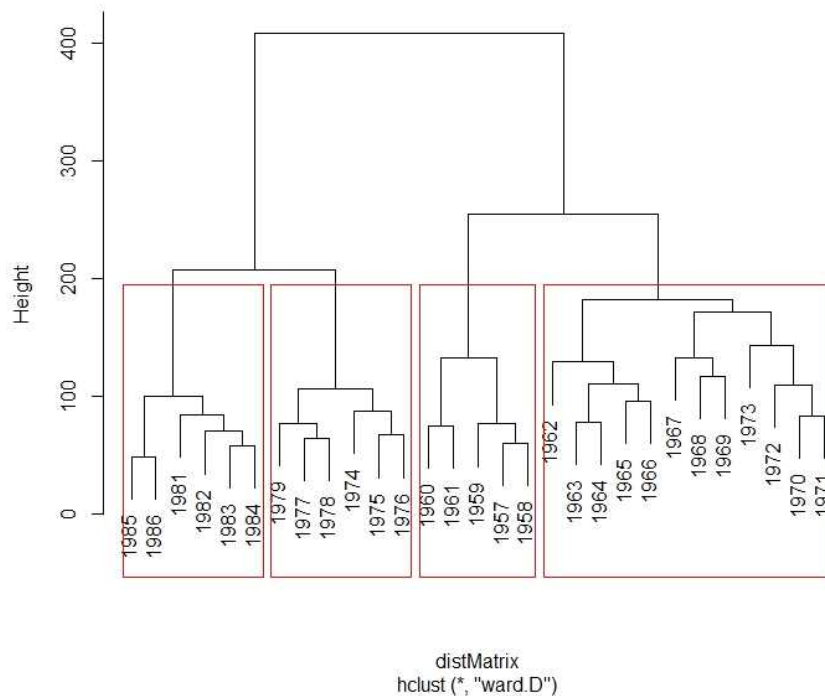
<그림 4> 핵 관련 기사의 연간 빈도수 (1957-1986년)

註: 앞의 <그림 1>에는 로동신문에서 나타내었으나, 이 그림에서는 연구시기에 해당하는 시기만을 표현하였다.

出處: 로동신문, 로동신문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가 구성

2) 문서 간 상관계수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분석

북한 핵담론의 분기점을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 클러스터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텍스트 클러스터링을 적용한 결과, <그림 5>와 같이 문서 간 상관성은 크게 4개의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선 핵 언급 기사의 연간 빈도수에 따라 구분한 시기와 상당히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했을 뿐만 아니라 담론을 구성하는 내용상의 변화 또한 분명하게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그림 5> 문서간 상관성계수를 이용해 분석한
북한 핵담론의 클러스터링 구조 (1957 - 1986년)

특히 주목할 점은 북한 핵담론이 1973, 1974년을 전후로 크게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누어진다는 점이다. 1974년은 미소간 핵전력의 균형이 이루어진 시기이다.⁶³⁾ 우측에 위치한 클러스터는 1957년-1973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미소 간에 상호확증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가 이루어지기 이전 시기이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이 소련에 비해 핵 우세(nuclear superiority)를 누렸지만, 소련의 전략 핵 능력의 향상으로 1960년대 말에 이르면 미 소 간에 전략핵전력의 ‘대략적인 균등(rough parity)’ 상황이 성립하였다. 우측에 위치한 클러스터는 1974년-1986년까지로 미소 핵균등이 이루어진 후 두 국가 모두 핵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상호확증파괴 전략을 구사한 시기에 해당한다.

좌측의 클러스터는 다시 두 개로 분류되며 미국의 핵전략 및 미소간의 핵전력의 변화와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우측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클러스터(1957-1961)는 미국이 대량보복전략을 전개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우측 제일 끝에 위치한 클러스터(1962-1973)는 케네디 행정부가 유연반응전략을 구사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1967년은 미소 간에 핵균등(nuclear parity)이 이루어진 시점이다.

좌측의 클러스터 역시 두 개로 세분화된다. 좌측에서 두 번째에 위치한 클러스터(1974-1979년)는 미소 간 핵균형이 형성된 후 슬레진저 독트린(Schlesinger Doctrine)이 수립되어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핵무기의 중요성이 강조된 시기와 일치한다. 1970년대 후반에는 주한 미군 철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카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실제로 임기 초반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실행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가 기대되던 시기였다. 좌측에서 첫 번째 클러스터(1981-1986년)는 신(新)냉전이 진행되던 시기이자 카터 행정부가 상쇄전략을 수립하고 미소 간에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이 재개된 지 3년 만에 중단되고 레이건 행정부에 의해 일명 “별들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63) Anatoly Diakov, Timur Kadyshev and Pavel Podvig, “Nuclear Parity and National Security In New Conditions”, Ivan Safranchouk, (eds.), *Russian Nuclear Policy: Problems and Prospects*, The PIR Study Papers, No. 14, (May 2000), pp. 40~47.

전략방위구상(Strategic Defense Initiative, SDI)이 추진된 때이다.

3) 시기별 출현 빈도 상위 단어 분석

로동신문 기사 게재 빈도수와 클러스터링 분석을 통해 냉전기 북한의 핵담론이 명확한 분기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냉전기 북한의 핵담론은 각 분기점을 기준으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앞선 분석을 토대로 핵 관련 기사가 급증한 1957년부터 1961년까지를 첫 번째 시기, 소강기인 1962년부터 1973년까지를 두 번째 시기, 핵 관련 기사가 다시 증가한 1974년부터 1980년까지를 세 번째 시기, 마지막으로 1981년부터 1986년까지를 네 번째 시기로 구분한 후, 로동신문에서 “원자” 또는 “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문장만을 골라내 각 시기별로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를 집계하였다.

	1957-1961	1962-1973	1975-1979	1981-1986
1	핵무기	일본	핵무기	핵무기
2	미국	미제	남조선	남조선
3	남조선	핵무기	미제	미제
4	무기	미국	조선	미국
5	시험	반대	미국	핵전쟁
6	소련	인민	일본	평화
7	인민	아시아	책동	전쟁
8	평화	핵잠수함	전쟁	세계
9	중지	침략	미군	조선반도
10	문제	기항	반대	일본
11	원자	책동	평화	조
12	조선	투쟁	우리	우리
13	정부	정부	핵전쟁	배치
14	협정	진행	규탄	위협
15	금지	평화	인민	인민
16	미제	사또	요구	책동
17	세계	요구	침략	반대
18	일본	미제침략군	아시아	미군
19	정전	강화	미제국주의자	지역
20	핵전쟁	규탄	조선인민	아시아
21	군비	위원회	위협	팀스피리트
22	원자 및	원자	철수	투쟁
23	반대	전쟁	철거	비핵지대
24	반입	핵시험	배치	침략
25	요구	감행	범죄	요구
26	침략	일본군국주의자	행위	계획
27	진행	중국	세계	전개
28	회의	정책	위협	진행
29	군사	오키나와	투쟁	전변
30	로케트	잠수함	박정희	참가

<표 1> 시기별 출현 빈도 상위 30개의 단어

텍스트 분석은 단어와 구(句)의 출현 빈도가 텍스트에 담긴 화자의 의도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상정한다. <표 1>은 각 시기별로 가장 많이 등장한 상위 30개의 단어들을 추출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각 시기별로 주요한 특징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7-1961년의 경우에는 “남조선”, “핵무기”, “반입”이라는 단어가 상위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가 자주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⁴⁾ 또한, “소련”, “금지”, “평화”라는 단어를 통해 소련 주도의 평화 공세 역시 북한의 주요 관심 대상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1962년-1967년에는 미국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 중국의 핵실험 성공, 미국의 지하 핵실험, 베트남 전쟁 등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에 배치되는 미국의 핵무기와 핵잠수함에 대한 언급 빈도가 가장 높았다. “일본군국주의자”와 “오키나와”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핵무장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일본의 핵무장화를 반대하는 일본인들의 평화 운동을 지지하는 기사를 주로 게재하였다.

셋째, 1974년-1979년에는 한국과 관련된 핵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었다.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 철거,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1981년-1986년 역시 한국이 핵문제의 중심에 놓여 있었는데, 특히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자주 게재되었고, 한반도 비핵지대 창립에 관한 기사 또한 높은 빈도로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전 시기에 걸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도 있다. “미국”, “미제”, “미제국주의자”, “미제침략군”과 같이 미국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상위 순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냉전기 북한의 핵담론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컸음을 의미한다.⁶⁵⁾

64) 북한은 독립된 정치적 실체로서 한국을 부정하기 때문에 한국 또는 한국 정부를 언급할 때 “남조선” 또는 “남”으로 표현한다. 박종희 외, 2015, p. 46.

65) 박종희 외는 미국에 대한 호칭을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인 정도에 따라 아래의 <표-2>와 같이 분류하였다. 박종희 외, 2015, p.49.

	호칭
중립	미국대표단, 미국
약한 부정	미제국주의자, 미제국주의, 미제, 미국놈
부정	미제무장간섭자, 미제무력간섭자, 미제국주의통치기반, 미제국주의통치
강한 부정	철천지원썩미제침략자, 원흉미제, 원썩미제침략자, 원흉미제, 원썩미제침략자, 원썩미제국주의자, 원썩미제, 미제호전광, 미제침략자, 미제침략, 미제무력침범자, 미제무력침략자, 미제무력침공자, 미제국주의침략자, 미제강도놈, 미국침략자

<표 2> 미국에 대한 북한의 표현 분류

2. 냉전기 북한 핵담론의 시기별 내용 분석

앞 절에서는 기사 빈도수, 클러스터링 분석, 단어 빈도수 분석을 통해 냉전기 북한의 핵담론이 명확한 분기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핵담론의 수사상의 변화를 보다 깊게 들여다보기 위해 단어 간 의미연결망 분석을 시도하였다. 단어 간 의미연결망 분석이란 한 문서 내에서 함께 사용되는 단어들을 분석함으로써 단어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살펴보는데 유용한 기법이다. 본 절에서는 네 개의 시기별 주요 단어들 간의 연결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정부가 핵문제를 풀어내고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첫 번째 시기는 북한 핵담론에서 핵위협담론이 최초로 등장하는 1957년부터 1961년까지이다. 두 번째 시기는 핵위협의 소재지가 주한미군의 핵무기에서 주일미군의 핵무기로 변화하는 양상을 나타낸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이다. 동 시기에 북한 핵위협담론은 크게 약화되는 동시에 일본의 핵무장 문제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세 번째 시기는 주한미군의 핵무기가 위협으로 재부상한 1974년부터 1979년까지이다. 마지막 시기는 한반도 핵문제의 부상과 북한발 평화공존 공세가 전개된 1981년부터 1986년까지다. 총 네 개로 나눈 시기별로 주요 단어들 간의 연결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정부가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1) 평화 공존 정책과 한반도 핵위협의 등장 (1957-1961)

첫 번째 시기인 1957년-1961년에는 소련의 평화공존정책에 관한 공조와 한국 핵무기 배치에 대한 반대가 병존하였다. <그림 6-1>을 살펴보면 해당 시기 북한의 핵담론이 핵무기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 키워드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수집했기 때문에, 수집된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든 ‘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컴퓨터는 담론 지도에서 ‘핵’의 영향력이 높다고 계산하여 노드가 커지고, 중앙에 가깝게 배치된다. 핵무기의 좌측에

는 “시험”, “중지”, “군비”, “축소”와 같이 핵무기 시험 중지 및 군비 축소 문제와 관련된 단어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북한 핵담론의 초기 형태 중 하나인 핵실험 및 선제 사용의 금지 담론에 속한다.⁶⁶⁾ 소련의 핵실험 이후 등장한 핵실험 및 선제 사용 금지 담론의 핵심논지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핵전쟁 위협의 제거와 핵무기 경쟁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원자 및 수소탄 실험을 중지하고 핵 무기의 생산, 축적 및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⁷⁾ 핵무기금지담론은 핵실험금지문제를 중심으로 대립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제국주의 국가들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소련”과 함께 사용된 “제안”이라는 단어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핵무기 시험 금지 및 군비 축소 문제를 주도하는 행위자는 소련으로 설명되었는데, 미국을 포함한 서부 열강들의 계속된 거부로 협정 도달이 방해받고 있다고 설명되었다.⁶⁸⁾

소련이 핵무기 사용 금지와 핵실험 중지를 제안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핵전력에 있어서 미소 간의 격차에 기인한다. 1949년 8월 핵실험에 성공한 소련은 미국을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소련의 핵전력은 미국에 한참 뒤쳐졌기 때문에 소련은 핵실험 성공 이전부터 전개해오던 핵무기 금지와 군비 축소를 외교 정책으로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며 미국의 핵전력 증강을 멈추고자 하였다.⁶⁹⁾ 동시에 소련은 군비 통제와 군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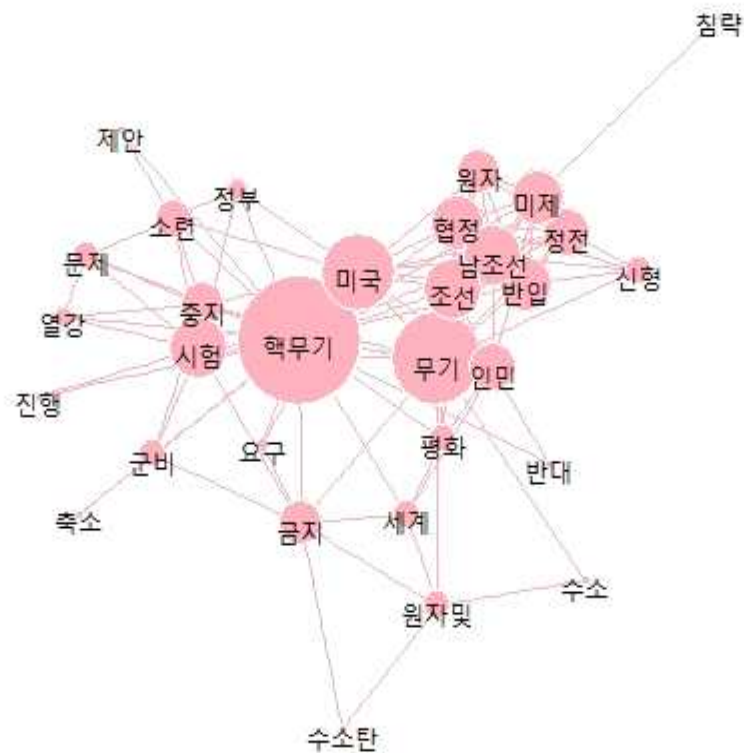
66) 북한 최초 핵담론의 형태는 핵무기 금지 담론이다. 미국의 핵 독점 체제 아래에서는 핵무기 완전 금지의 입장을 취하다가 1949년 소련의 핵실험 성공 이후 핵무기 금지에서 핵실험 및 선제 사용의 금지로 옮겨 갔다. 구갑우, 2013, p. 214

67) 흐루쇼프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 핵무기 폐기와 세계 평화에 대해 토의하는 과학과 국제 정세에 관한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s on Science and World Affairs)에 소련인 과학자들의 참가를 허락하였고, 흐루쇼프의 이름으로 “인류를 위협하는 끔찍한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려는 세계 각국 과학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편지를 전달하였다. Wittner, 2003, p. 70; 『로동신문』, 1957년 7월 1일.; 『로동신문』, 1957년 8월 18일.

68) 『로동신문』, 1957년 7월 2일.

69) 소련은 국제적으로는 핵실험 금지와 군비 축소를 찬성하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국내적으로는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갔고, 그 결과 1957년 하반기에 대륙 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세계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Sputnik) 발사에 성공하였다. U.N. Doc. No. A/RES/1653 (XVI) 1961, The history of the Soviet effort to obtain such a declaration is chronicled in BOGDANOV, *op.*

을 통해 경제적 자원을 비군사 분야(civilian sector)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세계 여론을 소련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그림 6-1> 북한 핵담론의 단어간 연결망 (1957-1961):

<그림 6-1>은 단어들 간의 공기여부(co-occurrence)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그린 담론 지도로 각 시기별로 주요하게 등장하는 단어들 간의 연결성을 보여준다. 이때, 원이 클수록 많이 언급되었다는 뜻이며 함께 자주 등장할수록 단어들 간의 위치가 가깝다. 이를 통해 단어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원자 및 수소” “금지” “수소탄” “반대” “세계” “평화”와 같은 일련의 단어들은 1954년부터 시작된 소련의 핵실험 금지 공세에 영향을 받은 북한이 마찬가지로 핵실험 금지 입장을 취

cit. supra note 2, pp. 191~203.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⁷⁰⁾ 1956년 제 20차 소련 당대회(the 20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에서 흐루쇼프(N. Khrushchyov)가 평화 공존론을 제창하자, 북한은 소련이 군비 통제와 군축을 통해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평화적 공존과 인류를 위협하는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⁷¹⁾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하 및 지상 핵실험 금지와 ‘비원자 지대’ 설치가 제기되었으나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이러한 노력들이 번번이 좌초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⁷²⁾ 한편으로, 북한 정권 역시 유엔과 유엔 군비 축소 위원회에 전반적 군비 축소와 핵무기의 축적 및 시험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내는 외교적인 노력을 취하고 있음을 알렸다.⁷³⁾

다음으로 <그림 6-1>의 오른쪽에는 북한 최초의 핵위협담론을 구성하는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 문제가 위치하고 있다. 북한 핵위협담론은 1957년 핵무기의 한국 배치안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하였다.⁷⁴⁾ “미제”, “정전”, “협정”, “남조선”, “신형”, “무기”, “반입”은 한반도 핵무기 배치 문제 제기 이후 등장하는 표현들이다. 정전 협정이 언급되는 이유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13항 ㄱ목에 의해 한반도 내 새로운 무기의 반입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1957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본 조항이 신실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본 조항의 효력 정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

70) 초기 북한의 핵담론은 사회주의 진영의 두 대표인 소련과 중국의 담론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구갑우, 2013; 조동준, 2015; 이종구, 2016.)

71) 『로동신문』 1957년 7월 16일; 1958년 1월 8일; 1958년 1월 11일; 1958년 1월 12일; 1956년 2월 14일에 열린 제20차 당대회에서 흐루쇼프는 국제정세에 관한 보고에서 서로 상이한 사회 체제를 가진 나라들 사이에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스탈린의 전쟁불가피론을 비판하며 소련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서로 상이한 사회 체제가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평화공존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핵전쟁의 파괴성을 지적하며 인류는 전쟁 또는 평화를 직면할 뿐이며 제 3의 길은 없다고 강조하였다.

72) 『로동신문』, 1958년 1월 21일.

73) 『로동신문』, 1957년 7월 2일.

74) 구갑우, 2013; 조동준, 2015; 이종구, 2016. 조동준은 북한에서 최초의 핵위협담론이 등장한 시기를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되기 시작한 1957년 12월에서 1958년 1월 사이로 보고 있으나 해당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북한에서는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은 정전협정을 파탄시키고 한국을 미국의 핵전쟁 기지로 만들어 북한에 침략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이재봉, 2008).⁷⁵⁾

그러나 북한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1958년 1월 전술핵무기인 어니스트 존(Honest John) 핵미사일과 280mm 원자포가 한국에 배치되었고⁷⁶⁾ 한반도에서 핵전쟁 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인 ‘설편 연습(Snowflake)’이 실시되었다. 이에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은 “미국의 원자 전쟁 준비 계획의 일환으로서 남조선을 원자 전쟁 기지로 전변”시키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이를 “극동과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규정했다.⁷⁷⁾ 1958년 2월 1일에 열린 군사 정전 위원회 제80차 회의에서는 “최근 미국측이 원자 무기를 남조선에 반입하고 비무장 지대 부근에서 도발적인 원자 《공격》 훈련을 감행한 일련의 범죄적 행위가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한 엄중한 파괴 행위”라고 항의하였다.”⁷⁸⁾

주목할 만 점은 앞서 핵무기금지협약을 논의할 때는 “미국 정부”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던 반면, 한반도 핵무기 배치 사안처럼 북한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미치는 문제를 다룰 때에는 “미제”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또한, “미제”와 “침략”이라는 두 단어의 연결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북한은 주한미군의 핵반입을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로 규정하며 이 사안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표명하였다. 이처럼 핵금지담론에 제한되어 있던 북한의 핵담론은 1958년을 거치면서 핵실험금지에 대한 동조와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핵위협담론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75) 『로동신문』, 1957년 7월 3일.; 『로동신문』, 1957년 7월 3일.; 『로동신문』, 1957년 7월 9일.

76) 1958년 1월부터 핵 대포와 어니스트 존이 한국에 배치됐고 이듬해에는 사정거리 1100킬로미터의 마타도르(Matador) 핵 순항 미사일도 배치됐다. 이후 미국이 핵무기의 수와 종류를 늘려나간 결과 1970년대 중반에는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가 1000개에 육박했다. 그러다가 카터 행정부의 등장 이후 그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1991년 부시 행정부가 전술 핵무기 철수를 선언할 때까지 100개 정도의 핵무기가 남아 있었다.: 정옥식,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9), pp. 107~114.

77) 『로동신문』, 1958년 1월 31일.; 『로동신문』, 1958년 2월 2일.

78) 『로동신문』, 1958년 2월 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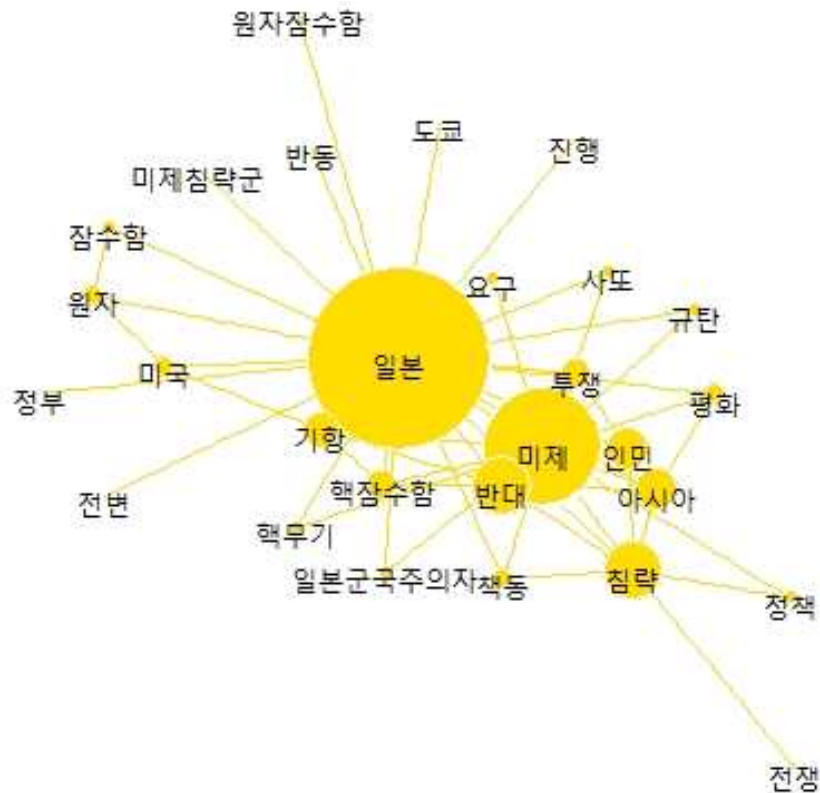
2) 미국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과 반핵 투쟁 (1962-1973)

1962년-1973년에는 미국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 베트남 전쟁, 미국의 지하 핵실험, 중국의 핵실험 등 핵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들이 언급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에 대한 언급 빈도가 가장 높았다. <그림 6-2>를 살펴보면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단어들이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핵공격수단의 한 종류인 ‘핵잠수함’은 이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단어로서 그 존재감이 두드러지는데, “일본”과 “미국”과의 연결고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이 지칭하는 핵잠수함과 전투폭격기는 일본에 배치된 미국의 핵공격수단들이었다.

미국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과 전투폭격기를 1962년 10월부터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들을 일본 항구에 기항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북한은 <그림 6-2>의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침략” 및 “전쟁”과 같은 단어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은 미국의 행위들이 아시아에 대한 침략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더 나아가 미국의 핵잠수함이 일본에 기항하는 것을 두고 미국이 일본을 핵기지화로 전변시키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래 기사는 일본의 핵기지를 우려하는 북한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다.

... 미 핵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승인한 일본 반동 정부를 신랄히 규탄하였다. ... 이러한 조치는 일본 인민의 격분을 자아냈다고 하면서 미 핵 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반대하는 일본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고 아세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제의 이러한 침략 책동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 미 핵 잠수함의 일본 기항은 일본을 미국이 핵전략 체계에 끌어 들이며 극동에서 핵 전쟁을 준비하려는 미제의 전쟁 책동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 미제가 일본을 핵 전쟁 기지로 전변시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⁷⁹⁾

79) 『로동신문』, 1964년 9월 5일



<그림 6-2> 북한 핵담론의 단어간 연결망 (1962-1973)

또한, <그림 6-2>의 오른쪽 아래에 위치한 ‘인민’, ‘투쟁’, ‘아시아’, ‘평화’라는 단어와 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한은 미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허락한 일본 정부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이 일본인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고 전하였다.⁸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을 겪었던 일본인들은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반대하고 있었는데, 원폭의 잔상이 채 가시기도 전, 1954년 3월 비키니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었고,⁸¹⁾ 1년 뒤인 1955년 12월 19일에는 일본 수상 나카소네 야스히

80) 『로동신문』, 1963년 9월 29일.; 『로동신문』, 1963년 12월 10일.; 『로동신문』, 1964년 1월 22일.

81) 1954년 3월 1일 미국이 태평양 오세아니아의 마셜 제도 북부에 위치한 비키니 섬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하던 중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일본 어선이 방사능

로(中曾根康弘)의 주도 아래 일본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한 최초의 법률인 원자력기본법(Atomic Energy Basic Law)이 제정되었다.⁸²⁾ 따라서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을 때, 이를 반대하는 시위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다.

미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	집회 참가 인원 (단위: 명)
USS Snook (SSN-592), May 1966	51,800
USS Seadragon (SSN-584), September 1966	16,884
USS Sculpin (SSN-590), March 1967	9,245
USS Barb (SSN-596), June 1967	8,334

<표 3> 미국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 및 반대 집회 참가 인원

出處: Commander in Chief, U.S. Pacific Command, “CINCPAC Command History 1967,” March 28, 1968, p. 130, FOIA.에서 재인용.

3) 한국의 핵무기 개발과 술레진저 독트린의 발표 (1975-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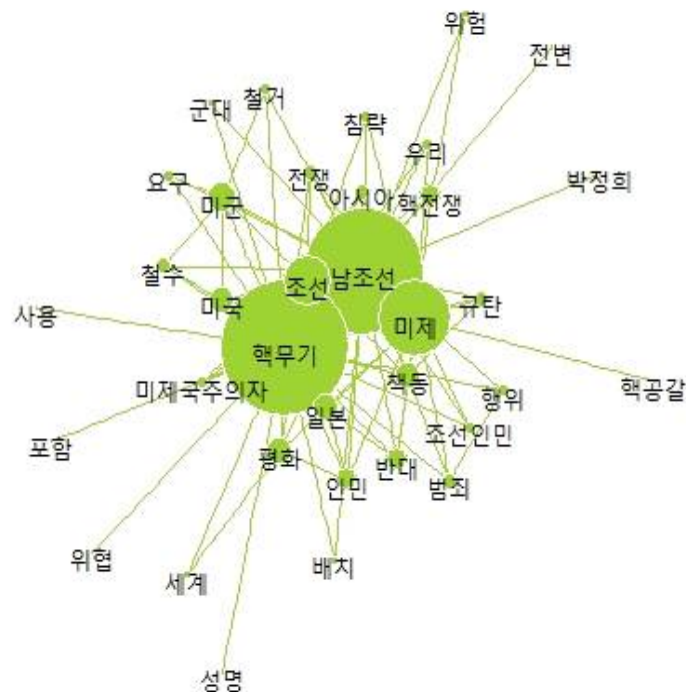
피폭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일본인 선원 한 명이 사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2000만 명이 서명하는 원자폭탄 금지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배경에서 일본정부는 1955년 '원자력기본법'을 제정했다. 그 법에는 원자력의 연구, 개발과 이용은 평화적 목적에만 제한하고 안전 확보를 취지로 민주적 운영하에 자주적으로 진행하며 그 성과는 공개하며 국제협력을 추진한다고 정하고 있다. 비키니 사건은 일본 반핵운동을 촉발시킨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Kristensen, 1999.

82) 1955년 12월 19일 일본 국회는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및 이용을 평화적 목적에 국한한다”고 규정하는 원자력기본법(Atomic Energy Basic Law)을 통과시키고 원자력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는 일본원자력에너지위원회(Japan Atomic Energy Commission)를 설립하였다. 원자력기본법의 원문 및 영어 번역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japaneselawtranslation.go.jp/law/detail/?id=2233&vm=04&re=02> (최

종검색일: 2016년 11월 30일)

세 번째 시기인 1975-1980년에는 한반도 중심의 핵위협담론이 우세하였다. 앞서 시기와 비교하여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1961년 이후 북한 핵담론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던 ‘남조선’이라는 단어가 재등장한 것이다. <그림 6-3>은 해당 시기 북한의 핵 담론이 ‘미제’, ‘남조선’, ‘핵무기’를 중심으로 한국의 핵개발, 주한미군 철수, 미국의 핵 선제공격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3> 북한 핵담론의 단어간 연결망(1974 - 1980)

남조선과 연관된 핵심 단어들을 통해 살펴본 이 시기 로동신문이 주로 다루고 있던 핵 관련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핵문제와 관련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하는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을 반영한다. 박정희라는 단어는 남조선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다른 단어들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에 빈도수에 있어서 상위 30을 기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9년 출범한 닉슨 행정부가 새로운

아시아 정책으로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시작하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1974년 10월 프랑스와 원자력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자 북한은 “중수형원자로를 설치하려는 박정희도당의 책동은 남조선을 핵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제의 침략계획의 직접적 산물이며 미제의 배후조정에 의한것”이라고 비판했다.⁸³⁾ 더 나아가 1975년 6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이 핵우산을 철수하면 핵무기를 포함해 우리 생존을 보장할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하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핵무기를 지원받아 한국을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기지로 전변시키기 위한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둘째, <그림 6-3>의 오른쪽에 ‘핵무기’와 연결된 ‘사용’이란 단어는 미국의 핵 선제공격 전략을 의미한다. 1975년 1월 쉘레진저 국방장관은 미 국회에서 《유럽 핵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만약의 경우 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게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고 다음 달 2월에는 공개적으로 한국에 배치되어 있는 핵무기의 존재 및 사용 가능성을 인정하였다.⁸⁴⁾ 이로부터 네 달 뒤인 1975년 6월 제럴드 포드 대통령도 미국의 핵선제 불사용 정책의 유효성을 묻는 질문에 “국가이익을 결정하는데 있어 최대한 신축성을 갖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응답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⁸⁵⁾ 또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경우 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either Confirm Nor Deny) 입장을 취했으나 “우리는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강력한 억제전력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그러한 전력은 국가이익에 있어 신축적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한반도에서 핵 선제사용 가능성을 부정하지

83) 『로동신문』, 1975년 1월 5일.

84) Schlesinger's testimony in US Congres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Foreign Policy Choices for the Seventies and Eighties*, 94th Cong. 1st and 2nd Sess., 2 Vols. (Washington, DC: GOP, 1976), p.509.

85)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The President's News Conference, June 25, 1975; 『동아일보』, 1975년 6월 26일.

않았다.

포드와 슐레징거의 인터뷰 직후 북한은 이를 즉각적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1975년 6월 22일 로동신문은 “미 국방장관 슐레징거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침략적 군사전략에서 《핵전쟁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상대방의 목표물을 《핵무기로 공격》할 것이라고 떠벌였다. 그리고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는 슐레징거의 이 방치에 동의”하였다고 보도하였고⁸⁶⁾, 며칠 뒤 1975년 6월 25일자 사설에서는 “최근 포드, 키신저, 슐레징거를 비롯한 미제의 전쟁우두머리들은 우리는 넘두에 두고 《상대방의 힘의 핵심》을 치겠다느니 우리와 《단기결전》을 하겠다느니 하고 강도적인 속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사용도 서슴치 않겠》다고 연방 웨치면서 우리 인민을 위협해보려 하고있다.”고 언급했다.⁸⁷⁾ 이와 같은 언급으로 미루어보아 북한은 자신이 미국의 핵선제공격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그림 6-3>의 왼쪽에 위치한 ‘남조선’과 ‘핵무기’와 연결된 ‘미군’ ‘군대’ ‘철수’ ‘철거’와 같은 단어들은 주한 미군과 핵무기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내 외국군대의 주둔과 핵무기 배치가 미국이 남한을 북한을 반대하는 핵전쟁기지로 전변시켜 핵전쟁의 위협을 증가시키고 조선반도를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첫 번째 시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주한미군 존속과 핵무기배치를 곧 북한에 대한 ‘침략’ 행위로 규정하였고, 한반도 내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의 철거와 핵무기 철수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⁸⁸⁾

한편, 이 시기에 들어서 사라진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앞선 두 시기에는 ‘일본’이 북한 핵담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1970년대를 거치며 그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졌다. 하지만 일본에 대한 언급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고, 여전히 주일미군이 핵무

86) 『로동신문』, 1975년 6월 22일.

87) 『로동신문』, 1975년 6월 25일.

88) 『로동신문』, 1975년 1월 11일.; 『로동신문』, 1975년 3월 21일.; 『로동신문』, 1975년 7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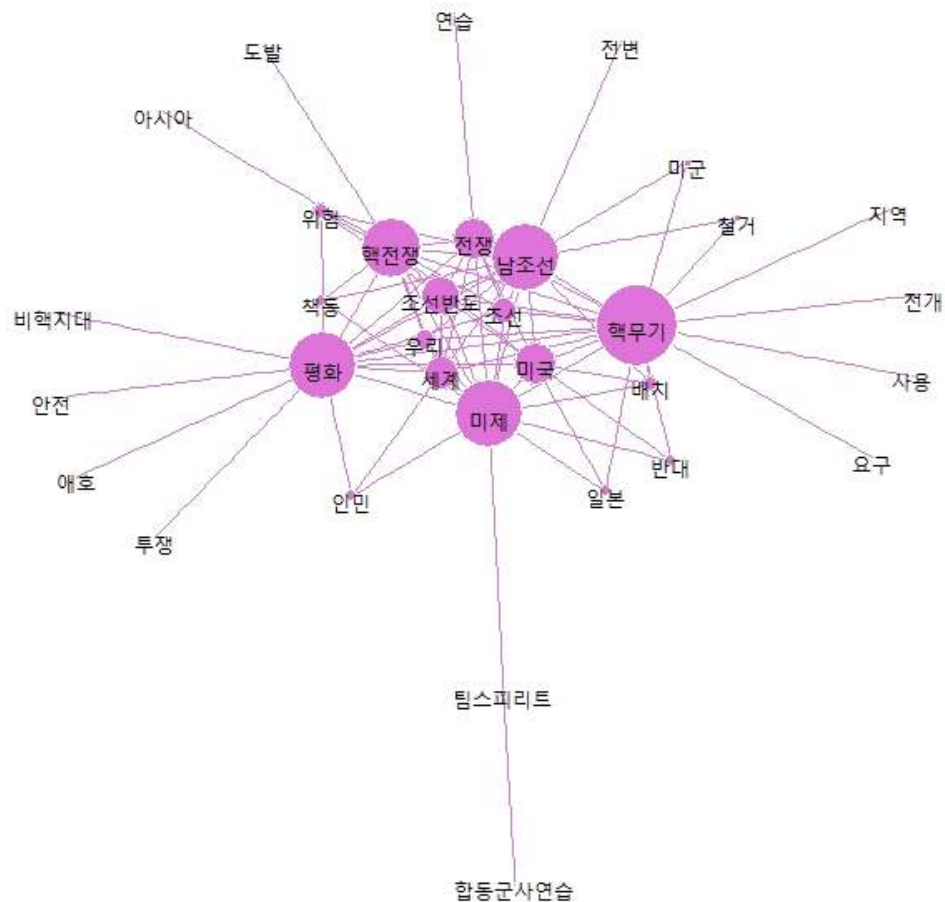
기 반입과 군사훈련 실시를 비판하는 기사들과 일본인민들의 반핵운동을 지지하는 기사들이 게재되었다.⁸⁹⁾ 아울러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1960년대 핵공격의 주요 수단으로 주로 언급되었던 ‘핵잠수함’이 담론에서 점차 사라졌다.

4) 핵문제의 한반도화 (1981-1986)

네 번째 시기인 1981-1986년에는 한반도 중심의 핵문제가 전면적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반핵 담론이 강해졌다. <그림 6-4>를 살펴보면 ‘미제’, ‘남조선’, ‘핵무기’, ‘핵전쟁’, ‘평화’라는 단어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선반도’, ‘조선’, ‘우리’, ‘세계’, ‘미국’은 상대적으로 등장빈도수가 낮지만 가장 중심에서 여러 단어들과 연결되어 북한 핵담론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림 6-4>의 오른쪽에는 핵위협담론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배치되어 있다. ‘미제’와 연결된 ‘핵전쟁’, ‘도발’, ‘책동’이란 단어들을 통해 당시 북한은 여전히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킬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의 연기, 주한미군의 핵무기 추가 반입,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Team Spirit)’ 군사훈련을 근거로 들며 미국이 북한을 목표로 삼은 핵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89) 『로동신문』, 1974년 10월 19일.



<그림 6-4> 북한 핵담론의 단어간 연결망(1981 - 1986)

<그림 6-4>의 오른쪽 하단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 (Team Spirit)’ 군사훈련이 등장한다. 팀 스피리트 훈련은 1975년 베트남 공산화 이후 북한의 도발위협이 상대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1976년 6월에 최초로 실시된 이후 1992년을 제외한 1993년까지 매년 실시되었다.⁹⁰⁾ ‘팀 스피리트’와 ‘합동군사연습’은 ‘미제’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

90) 국방부, 『국방백서, 1988』 (서울: 국방부, 1988), p. 110.

는데 이는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미국이 공화국 북반부를 공격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적인 군사훈련을 주도하고 있다는 북한의 인식을 반영한다. 팀 스피리트 군사 훈련에 대해 북한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지금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주둔 미군과 괴뢰군무력 그리고 미국본토와 해외기지들로부터 솜한 병력과 각종 최신살륙수단들을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팀스피리트 82》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다. ... 오늘 미국의 현 지배층이 로골적으로 핵군비를 확장하며 《제한된 지역》에서의 핵전쟁을 떠드는것과 시기를 같이하여 남조선에서 핵무기와 핵무기를 다루는 군사인원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태이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번 《팀 스피리트 82》 군사연습이 그것을 가당한 《시험전쟁》이며 《예비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미제의 무모한 군사적 모험정책으로 말미암아 조선에서 전쟁위험, 핵전쟁위험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⁹¹⁾

즉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 목표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위협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그림 6-4>의 왼쪽에는 ‘평화’라는 단어를 주축으로 반핵 담론에 속하는 일련의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비핵지대(nuclear-free zone)’이다. 비핵지대 또는 평화지대라는 개념은 미국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담론으로 1958년에 처음 소개되었다. 평화지대는 안정적(stable) 평화가 가능한 지역으로, 북한은 소련의 글을 인용하며 “핵 및 로켓 무기가 없는 지역”을 평화지대로 규정하였고, 이후 평화지대는 비핵지대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⁹²⁾ 당시 북한은 미국의

http://www.mnd.go.kr/user/mnd/upload/pblictN/PBLICTNEBOOK_201505201208080080.pdf (최종 검색일: 2016년 11월 10일).

91) 『로동신문』, 1982년 3월 3일.

92) 『로동신문』, 1958년 3월 11일.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이 평화지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⁹³⁾. 이후에도 세계 여러 지역들에서 비핵지대를 설립하였다는 혹은 비핵지대 설립 제안을 찬성하는 기사를 게재하며 비핵지대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한 시점은 1980년부터이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의 실천조치의 하나로서 한반도 비핵 평화 지대(NWF: Nuclear Weapons Free Zone)를 제의하고 한국의 미군 핵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다.⁹⁴⁾ 이듬해 1981년 3월 16일에는 일본사회당과 함께 동북아시아 지역⁹⁵⁾에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에 대한 제안을 행한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제안을 되풀이하였다.⁹⁶⁾ 이와 같은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듯 로동신문에서도 북한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함을 알렸다. 1981년 2월 15일자 로동신문 기사는 조선반도에서 비핵지대, 평화지대 창설은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존재로부터 야기되는 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조선반도를 구하고 평화를 수호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핵무기 철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⁹⁷⁾ “조선반도”, “비핵지대”, “평화”와 같은 단어들의 연결고리는 조선반도에 비핵지대를 창설해야만 핵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김일성의 한반도 비핵 평화 지대 창설 제안을 반영하고 있다.

93) 구갑우, 2014.

94) 전성훈,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02-01』, (2002년 12월), p. 18.

95) 공동선언문 제 4항에 의하면 동북아시아의 비핵, 평화지대의 범위는 조선과 일본 및 그 주변해역으로 한다.

96) 『로동신문』, 1986년 6월 22일.

97) 『로동신문』, 1981년 2월 15일.

IV. 냉전기 북한 핵위협인식의 변화 동학

앞선 3장에서는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북한 핵담론의 전개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는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요 관심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핵공격에 대한 북한의 위협인식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났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4장에서는 북한 핵위협인식의 변화 동학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텍스트에 대한 감성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미국 핵전략의 변화가 북한 핵위협담론과 북한 핵위협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서론에서 핵위협인식은 비핵 국가가 핵 국가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두려움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위협인식은 자국을 둘러싼 안보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핵위협인식의 증감은 핵위협과 관련된 단어들의 출현 빈도를 통해 측정한다. 다시 말해, 핵위협 관련 단어들의 빈도수 증가는 핵위협인식의 강화를 의미하며 빈도수 감소는 핵위협인식의 약화를 의미한다.

1절에서는 먼저 북한 핵위협담론을 구성하는 요인들의 시기별 특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북한이 현실세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핵위협이 가해지는지 에 대한 북한의 인식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절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국의 핵 선제공격 의도와 핵공격 능력 요인을 검토한 후, 이러한 요인의 변화와 핵위협인식의 변화 동학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1. 핵위협담론 구성요소의 시기별 특징

북한 핵위협담론은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핵위협의 주체(agent)는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행위자, 즉 핵무기 보유국을 의미한다. 둘째, 핵위협의 수단은 핵공격을 가하는 행위자가

어떤 종류의 무기를 이용하여 핵공격을 가하는가를 의미한다. 핵무기는 크게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운반 수단의 사정이 길고, 탄두의 위력이 크기 때문에 전쟁의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의 영토 혹은 국가기반 등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를 말하며 전략핵무기의 운반 수단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폭격기 등이 있다. 후자는 운반 수단의 사정이 짧고 위력이 작은 소형핵무기로 주로 국지전에서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셋째, 핵위협의 소재지는 핵공격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의 문제이다. 냉전기 동안 미국은 여러 국가에 핵무기를 배치해놓고 유사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었다. 양대 공산주의국가인 중국과 소련이 있는 아시아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록 나토-유럽 지역에 비해서는 전략적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지만 한국전쟁과 대만 해협위기를 겪으면서 아시아에서의 공산주의세력과 무력 충돌을 억지하기 위해 아시아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 아시아에는 늦어도 1961년부터 미국령인 괌과 미국의 시정권 하에 있던 오키나와,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필리핀, 그리고 대만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1991년 한국에서의 핵무기 철수를 끝으로 아시아동맹국으로부터 핵무기가 모두 철수되었다.⁹⁸⁾

마지막으로 핵위협의 대상은 핵무기 보유국이 위협을 가하는 대상을 의미한다. 위협의 대상은 핵무기 보유국과 비핵국 모두 해당될 수 있지만, 핵무기 보유국들은 비핵국에 대하여 핵무기 사용 및 사용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원칙인 소극적 안전 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을 선언한 바 있다. 1964년 첫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은 핵 선제 불사용을 발표하였고, 미국은 1978년 비핵국에 대해 핵보유국과 연합하여 미국 및 동맹국가들을 공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핵 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⁹⁹⁾

98)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Appendix B.

99) 1978년 미국은 “will not use nuclear weapons against any

본 절에서는 앞서 3장과 마찬가지로 냉전기 북한 핵담론을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핵위협 주체와 핵위협 소재지, 핵위협 수단, 그리고 핵위협 대상에 주목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핵위협담론의 수사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핵위협담론의 구성요소를 시기별로 정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957-1961	1962-1973	1975-1980	1981-1986
미소간 핵전력	미국의 핵 우위기		미소간 핵 균형기	미소간 핵 균형기
미국의 핵전략	대량보복전략	유연반응전략	술레진저 독트린	상쇄전략 전략 방위 구상
핵위협 주체	미국	미국	미국	미국
핵위협 소재지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핵위협 수단	핵무기 전술핵무기	핵잠수함 전술핵무기	핵잠수함 전술핵무기 제한적 전략핵무기	핵잠수함 전술핵무기
핵위협 대상	북한 사회주의국가	베트남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	북한	북한

<표 4> 북한 핵위협담론 구성요소의 시기별 특징

1) 한국발 핵위협담론의 등장 (1957-1961)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NPT or any comparable internationally binding commitment not to acquire nuclear explosive devices, except in the case of an attack on the United States, its territories or armed forces, or its allies, by any state allied to a nuclear-weapon state or associated with a nuclear-weapon state in carrying out or sustaining the attack.”이라고 발표하였다.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reements: Texts and histories of the negotiations* (Washington D.C., 1990), p. 94.

3장에서 전술하였듯이 북한 핵위협담론은 1957년 12월에서 1958년 1월 사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에 대한 반응으로 등장하였다. 북한에서 핵위협담론이 처음으로 나타난 1957년 이래 북한에게 끊임없이 핵공격의 위협을 가하는 주체는 미국이었다. 아래 기사는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견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전 협정을 계속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군사력을 증가하여 오던 미제 침략자들은 최근 원자 무기를 남조선에 반입하며 남조선을 극동 침략을 위한 원자기지로 삼으려는 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 있으며 군사 분계선 근방에서 대규모적인 원자 전쟁 연습을 진행하며 대규모적인 원자 전쟁 연습을 진행하며 우리 나라와 극동 및 세계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범죄적 행동을 감행하고 있습니다.¹⁰⁰⁾

위 기사는 핵위협을 가하는 주체는 미국이고, 미국이 원자 무기를 한국에 반입하고 한국에서 원자 전쟁 연습을 진행하면서 한국을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소재지인 원자기지로 만들고 있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우리 나라와 극동 및 세계 평화를’이라는 표현에서 이러한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과 군사 훈련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핵위협의 대상이 북한이라는 것이다.

2)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핵 위협 소재지의 전이 (1962-1973)

해당 시기 핵위협을 가하는 주체는 여전히 미국이었지만 핵위협의 소재지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전이되었고, 핵위협의 수단은 ‘핵잠수함’이다. 이 시기에 들어 일본에 배치된 핵잠수함과 전투폭격기에 대한 보도가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보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¹⁰¹⁾

100) 『로동신문』, 1958년 2월 8일.

미국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과 전투폭격기를 1962년 10월부터 일본 오키나와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로동신문은 일본 인민들이 미국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과 핵폭격기의 한 종류인 《에프—105디》형 제트 전투 폭격기 배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개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¹⁰²⁾

그러나 일본에 기항한 미국의 핵잠수함과 전투폭격기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겨냥하여 배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1960년 초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기사는 지속적으로 등장했지만, 핵잠수함과 전투폭격기가 위협을 가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부재했던 것이다. 이는 앞선 시기에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을 북한에게 침략 위협을 가하려는 시도로 명확하게 표현했던 것과 대조된다.

1964년 9월에 이르러서 북한은 미국의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좁게는 동남아시아 또는 극동, 넓게는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도발 정책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한다. 미국이 통킹 만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베트남전쟁에 개입하기 시작하자 미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을 베트남전쟁과 연관지어 ‘아세아 인민들에 대한 무모한 핵 공갈 책동’이자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책동’이라고 규탄하였고 오키나와는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침략기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¹⁰³⁾ 미국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발표한 핵전략에 대한 비판하는 기사에서도 아시아 인민에 대한 무모한 핵 공갈 책동을 걷어 치워야 한다고 말하지만 북한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아시아 지역을 언급하였다.¹⁰⁴⁾

101) 1959년에도 주일미군의 핵무기에 대한 기사가 등장하기는 했지만, 이전 시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던 반면 196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주일미군의 핵공격수단을 더 많이 언급하였다. 1950년대 후반 핵문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주한미군의 핵무기 또한 1960년대부터 점차 감소하더니 1962년에는 신문에서 그 자취를 감추었다.

102) 『로동신문』, 1963년 9월 29일.; 『로동신문』, 1963년 12월 10일.; 『로동신문』, 1964년 1월 22일.

103) 『로동신문』, 1964년 8월 7일.; 『로동신문』, 1966년 3월 3일.

104) 『로동신문』, 1965년 1월 1일.

그렇지만 북한이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핵 배치 정책이 타국을 침략하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래 기사는 북한이 미국의 핵잠수함 기항을 방어용 목적이 아닌 공격용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버마 신문 루두는 사설에서 미국 원자 《루두》는 사설에서 미국 원자 잠수함들을 일본에 기항시키려는 미제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중략) 일본에는 이미 미국 《유-2》 비행기와 분사식 폭격기들이 배치되어 있다. 일본에 원자 잠수함을 기항시키려는 미국의 계획은 **동남아세아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또 하나의 조치**로 된다. 신문은 미국이 일본에 공군 및 해군 기지들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동남 아세아에 군림하려는 흉악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하였다.(강조는 저자)¹⁰⁵⁾

그러나 앞선 시기와 대조해보면 북한이 직접적으로 핵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핵전쟁, 핵전쟁위협, 핵전쟁위협과 같이 북한이 핵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어들의 등장 횟수가 감소하거나 신문에서 사라졌다. 핵전쟁, 핵전쟁도발, 핵전쟁정책의 빈도수는 1~2회 정도에 그치며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핵잠수함의 높은 빈도수에 비해 핵전쟁과 핵전쟁도발과 같이 핵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단어들의 빈도수가 월등히 낮은 점은 일본의 핵무기와 북한의 안보 위협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일본에 배치된 핵무기로 인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언급이 부재한 것으로 보아 이전 시기에 비해 핵공격에 대한 위협 수준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일본의 핵잠수함 또는 전투폭격기는 북한에게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핵위협담론도 자연스레 약

105) 『로동신문』, 1964년 9월 6일.

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핵 위협 소재지의 재전이 (1975-1980)

세 번째 시기인 이 시기 핵위협의 주체는 여전히 미국이지만, 핵위협의 소재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재전이되었다. 북한은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연습훈련을 펼치며 미국이 남조선을 핵공격기지로 전변시키고 조선에서 핵전쟁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 이와 같은 한국으로부터 제기되는 핵위협에 대한 언급 증가는 북한에 핵위협을 가하는 소재지가 ‘일본’에서 ‘남조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시사한다.¹⁰⁶⁾

핵위협의 소재지가 한국으로 재전이된 배경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핵프로그램 추진과 슬레진저 독트린의 발표를 꼽을 수 있다. 북한은 한국의 중수형 원자로 수입과 박정희의 핵개발을 “남조선을 핵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제의 침략계획의 직접적 산물이며 미제의 배후조정에 의한 것”이며 “미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이 새로운 조선전쟁을 도발하는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갖추는데 피눈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남조선의 박정희군사강패무리들에게 핵무기를 쥐여 주려고 은밀히 책동하고 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도당에게 이미 원자로들을 넘겨주었다.”고 주장하였다.¹⁰⁷⁾ 북한은 박정희 정부의 핵개발이 미국의 공조 하에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더 나아가 1975년 4월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하자, 남한 정부는 1975년 5월 미국이 핵우산을 철수하면 남한은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6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우산을 철수하면 핵무기를 포함해 우리 생존을 보장할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정희 대통령

106) 해당 시기에도 여전히 주일미군의 핵무기 반입을 비판하는 기사들이 발행되었다. 하지만 핵공격의 대상이 북한 또는 조선 반도임을 명확하게 지칭하는 부분에서 이전 시기와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로동신문』, 1974년 10월 19일.

107) 『로동신문』, 1975년 6월 22일.

으로서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 받기 위한 일종의 ‘벼랑끝전략(brinkmanship strategy)’을 구사했던 것이지만 북한을 박 대통령의 발언을 궁극적으로 북한을 공격한 목적으로 더 많은 핵무기를 얻어내려는 음모로 보았다. 아래 기사는 박정희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잘 나타낸다.

보도에 의하면 박정희역도는 최근 미국기자들과의 이른바 《회견》에서 미국의 《핵우산이 철거》될 경우 《자체로 핵무기를 개발》할것이라고 떠들어댔다 한다... 박정희도당의 이러한 떠벌임은 한갓 호전적넉두리가 아니라 거기에는 위험한 전쟁의 불씨, 무모한 핵전쟁흉계가 담겨져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새 전쟁 도발에서 살구멍을 찾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제의 핵우산이 《철거》나 될듯이 여론을 기만하면서 그 막 뒤에서 핵무기를 더 많이 끌어들여 남조선을 핵무장화하고 그곳을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핵전쟁의 온상으로 더욱 전변시킴으로써 전쟁을 일으키고 제놈들의 더러운 잔명을 부지해보려는 흉악한 음모를 꾸미고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다.¹⁰⁸⁾

하지만 미국의 안보 재공약을 약속 받고 박정희 정부는 핵프로그램을 중단하였으나 북한 핵위협담론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또한 해당 시기에는 북한이 핵공격대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이전 시기 핵공격대상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기 보다는 지역적 차원에서 아시아를 언급하였고, 특정 국가를 지칭한다 하더라도 북한 자신이 아닌 다른 국가가 위협당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가 ‘공화국 북반부’ 또는 ‘조선 인민’을 겨냥하고 있다는 주장을 다수 발견할 수 있다.¹⁰⁹⁾ 한국에서의 핵무기 사

108) 『로동신문』, 1975년 6월 15일.

109) 『로동신문』, 1975년 1월 7일.; 『로동신문』, 1975년 1월 12일.; 『로동신문』, 1975년 1월 17일; 『로동신문』, 1975년 6월 15일.; 『로동신문』, 1975

용 가능성을 시사한 포드와 슐레징거의 인터뷰 직후 게재된 1975년 6월 22일 로동신문 기사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북한이 이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미국방장관 슐레징거는 2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침략적군사 전략에서 《핵전쟁을 중시하는 자세》를 강화하고있으며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상대방의 목표물을 《핵무기로 공격》할것이라고 떠벌였다. 그리고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는 슐레징거의 이 방치에 동의하였다고 한다.”¹¹⁰⁾ 고 보도하였고 며칠 뒤 1975년 6월 25일자 사설에서는 “최근 포드, 키신저, 슐레징거를 비롯한 미제의 전쟁우두머리들은 우리는 넘두에 두고 《상대방의 힘의 핵심》을 치겠다느니 우리와 《단기결전》을 하겠다느니하고 강도적인 속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을뿐만아니라 《핵무기의 사용도 서슴치않겠》다고 연방 웨치면서 우리 인민을 위협해보려 하고있다.”고 언급했다.¹¹¹⁾

4) 한국발 핵 위협의 강화 (1981-1986)

마지막 시기인 1981-1986년의 핵위협담론 구성요소는 이전 시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여전히 북한을 위협하는 주체는 미국이며, 위협의 소재지는 한국이고, 위협의 대상은 북한이다. 앞선 시기 핵위협이 한국의 핵프로그램 개발과 슐레징거 독트린에서 기인하였다면, 본 시기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과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 방위 구상에서 기인하였다. 아래 기사는 북한이 한미 간 팀 스피리트 훈련을 북한을 반대하는 핵공격훈련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제가 이미 남조선에 수백개의 핵무기를 배치하여놓고 우리

년 6월 25일.

110) 『로동신문』, 1975년 6월 22일.

111) 『로동신문』, 1975년 6월 25일.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전쟁계획을 짜놓았으며 심지어는 남조선에 전역핵미싸일과 중성자탄까지 끌어들이려 하고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있다. 미제호전광의 도발적폭언은 이미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준비를 해놓은 그들이 그 기회를 노리고있는것이라고밖에 달리 볼수 없다. ... 바로 이자의 일본과 남조선 행각은 《팀 스피리트》전쟁훈련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핵시험전쟁》, 《핵예비전쟁》으로 진행하게 하려는 미제우두머리들의 계획의 실현을 현지에서 감독지휘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¹¹²⁾

마찬가지로 북한은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 방위 구상을 북한에게 핵 위협을 가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았다.

오늘 레간행정부는 극히 모험적인 《핵무력증강계획》을 세우고 군사예산의 많은 몫을 여기에 쏟아붓고 있다. 미국지배층은 《핵무력증강계획》을 실현하여 핵무기와 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개발생산하여 미국본토는 물론 해외군사지탕점들을 핵무기로 뒤덮음으로써 핵전쟁준비를 완성하려 하고 있다. ... 미제는 남조선과 오키나와, 일본본토, 괌섬을 아세아전략수행을 위한 핵타격기지로 전변시켰으며 여기에 더 많은 핵무기들을 끌어들이고있다.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한 남조선에 순항미싸일과 중성자탄까지 끌어들이려 하고있으며 미제7함대에 새로운 핵무기들을 배치하기로 하였다.¹¹³⁾

2. 감성분석을 통해 살펴본 냉전기 북한 핵위협인식의 변화 추이

본 절에서는 북한의 핵위협인식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앞서 위협에

112) 『로동신문』, 1983년 1월 24일.

113) 『로동신문』, 1984년 4월 17일.

대해서 정의하고자 한다. 위협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위협을 가하는 행위자가 위협을 실행할 의도(intention)와 능력(capability)을 보유하고 있는가이다.¹¹⁴⁾ 따라서 북한에게 핵위협을 가하는 미국이 핵공격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1) 핵위협인식 변화의 요인

북한 핵위협인식의 변화 동학은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 보유 요인과 미국의 핵공격 의도 요인으로 결정될 수 있다. 이 때,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 보유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했는가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는 그 위협을 투여시킬 수 있는 물리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남침 의도를 억지하려고 했다. 이에 따라 1957년 말부터 한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었으며, 1991년 완전 철수할 때까지 약 30년간 한국에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전략적 필요에 따라 핵무기량이 증감을 겪었다. 따라서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의 분포와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미국의 핵공격 의도 요인은 미국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핵실험 성공 이래 미국의 핵정책은 적과의 갈등 상황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 만약 사용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쟁해왔으며 그 결과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당시의 국제정치 상황, 주요 적대국이 야기하는 군사적 위협, 동맹국들의 입장, 핵무장 기술의 발전 상태, 경제상황과 국내 정치적 요인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새로운 핵전략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미국의 핵전략의 변화가 북한의 안보 위협에 미친 영향을 간과한

114) Thomas C.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측면이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전력을 갖춘다고 할 지라도, 미국이 갈등 발생 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면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은 낮을 것이다. 따라서 핵공격의 능력에 대한 고려와 함께 핵공격 의도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위 두 가지 변화요인을 통시적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 5-1>과 같다.

	미국의 핵 선제공격 의도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 보유
1945	X	X
1946	X	X
1947	X	X
1948	X	X
1949	X	X
1950	X	X
1951	X	X
1952	X	X
1953	O	X
1954	O	X
1955	O	X
1956	O	X
1957	O	O/+
1958	O	O/+
1959	O	O/+
1960	O	O/+
1961	O	O/+
1962	X	O/+
1963	X	O/+
1964	X	O/+
1965	X	O/+
1966	X	O/+
1967	X	O/+
1968	X	O/-
1969	X	O/-
1970	X	O/-
1971	X	O/-
1972	X	O/-
1973	X	O/-
1974	O	O/-
1975	O	O/-
1976	O	O/-

1977	X	O/-
1978	X	O/-
1979	X	O/-
1980	X	O/-
1981	X	O/-
1982	X	O/-
1983	X	O/-
1984	X	O/-
1985	X	O/-
1986	X	O/-

<표 5-1> 미국의 핵 선제공격 의도 요인 및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 보유 요인 (1953~1986): 미국의 핵 선제공격 의무 미국의 핵 선제공격 의도 유무는 (O), (X)로 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 요인은 주한 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O), 보유하고 않으면 (X)로 표시하였고, 주한미군의 핵무기량이 증가하는 경우 (+)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를 표시하였다.

미국이 핵 선제공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시기는 첫째, 1953년부터 1961년까지와 둘째, 1974년부터 1976년까지의 시기이다. 해당 기간에는 미국 행정부가 적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핵 선제공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첫 번째 시기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전략이 채택된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닉슨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의 이름은 딘 러셀이 채택된 시점부터 카터 행정부에 의해 핵 선제공격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기 직전까지를 포함한다.

반면 미국이 핵 선제공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시기는 1945년부터 1952년까지와 1962년부터 1973년까지, 그리고 1977년부터 1986년까지이다. 1945년 8월 미국은 핵무기 시험에 성공하였지만, 갈등 발생 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트루먼 대통령은 핵무기를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하여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매우 낮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1961년 취임한 케네디 대통령은 대량보복의 위협으로 적의 도발을 억지한다는 개념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으며 대통령으로서도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핵공격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역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적의 도발에 대한 선택권을 확장한 유연반응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적에게 핵 선제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의도를 철회하였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임기를 거친 카터 대통령과 그 뒤를 이은 레이건 대통령도 핵 선제공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다음으로 주한미군의 핵공격능력 보유와 관련하여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아직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 전인 1953년부터 1956년까지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한국에 최초로 핵무기가 배치되기 시작한 1957년부터 핵무기량이 점차 증가하여 최고조에 이르는 1967년까지이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점차 그 보유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1968년부터 1986년을 세 번째 시기로 볼 수 있다.

	핵공격능력을 보유하지 않는 시기	핵공격능력이 증가하는 시기	핵공격능력이 감소하는 시기
핵 선제공격의도가 없는 시기	(A) 1945~1952	(C) 1962~1967	(E) 1968~1973 1977~1986
핵 선제공격의도가 있는 시기	(B) 1953~1956	(D) 1957~1961	(F) 1974~1976

<표 5-2> 미국의 핵전략 변화 요인에 따른 시기 구분

<표 5-2>는 두 요인의 시기적 전개를 미국의 핵 선제공격 의도 유무와 미국의 한반도 핵공격능력 유무 및 증감으로 구성된 2X3 매트릭스로 표현한 것이다. 먼저 (A) 시기는 미국이 핵 선제공격의도와 한반도

핵공격수단 둘 다 갖추지 않았던 시기였다. 다음으로 (B) 시기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하면서 적대국에게 핵 선제공격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한반도에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물질적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던 시기이다. (C) 와 (E) 시기는 미국이 핵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적에게 핵선제공격을 가할 의도는 없었던 시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C) 시기는 주한미군이 보유하는 핵무기량의 증가로 한반도에서 미국의 핵공격능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로 1962~1967년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반대로 (E) 시기는 핵무기량이 감소하는 시기로 1968~1973년과 1977~1986년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D)와 (F) 시기는 미국이 핵 선제공격의도와 핵공격능력을 모두 갖추었던 시기이다. (D) 시기는 미국이 핵 선제공격의도를 보유하면서 주한미군의 핵공격능력 또한 증가했던 1958~1961년이 여기에 속한다. (F) 시기는 미국이 핵 선제공격의도를 여전히 갖고 있지만 핵공격능력이 점차 감소했던 시기로서 1977~1982년이 이 시기에 속한다.

2) 핵위협인식 변화의 동학

다음으로 핵위협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핵위협과 관련된 단어를 선정한 후 감성분석기법을 이용하여 해당 단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였다. 핵위협을 의미하는 단어는 위협의 강도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하여 <표 6>에 정리하였다.

핵 관련 보도에서 나타나는 북한 정권의 핵위협인식의 수준은 골드스타인(J.S. Goldstein) 지수를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골드스타인이 제시한 갈등 협력 지수는 61개의 WEIS Events 타입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두 국가 간의 갈등·협력양상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¹¹⁵⁾ 골드스타인 지수에 따르면 두 국가 간에 가장 갈등적인 상호작용은 군사 공격(military attack), 무력 충돌(clash), 그리고 공격(assault)이며, 가장 협력적인 상호작용은 군사원조 제공(extend military assistance)이다.¹¹⁶⁾

115) 골드스타인 지수의 정식 명칭은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이며 WEIS는 World Events Interaction Survey의 약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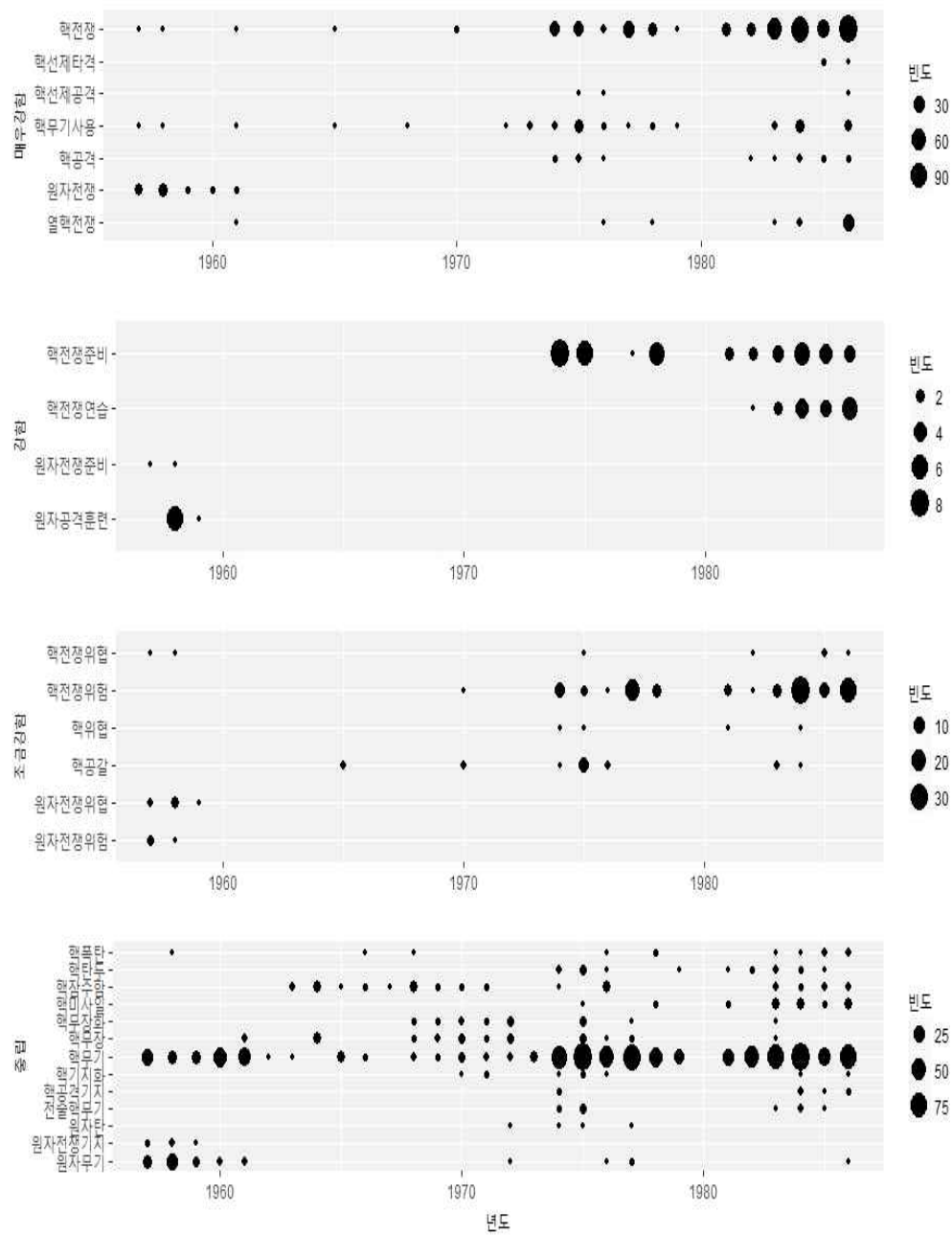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는 골드스타인 지수를 토대로 중 군사 공격(military attack), 무력 충돌(clash) 및 공격(assault)에 속하는 단어들을 ‘매우 강함’으로, 군사 동원 및 훈련 (armed force mobilization, exercise, and display)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강함’으로, 구체적인 군사 위협 (threat with force specified)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조금 강함’으로, 마지막으로 핵무기 종류에 해당하는 단어들과 핵무장은 그 자체로 위협을 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분류하였다.

구분	단어
매우 강함	열핵전쟁 원자전쟁 한정핵전쟁 한정핵전쟁론 핵공격 핵무기사용 핵선제공격 핵선제타격 핵전쟁
강함	원자공격훈련 원자전쟁준비 핵전쟁연습 핵전쟁준비
조금 강함	원자전쟁위협 원자전쟁위협 핵공갈 핵위협 핵전쟁위협 핵전쟁위협
중립	원자무기 원자전쟁기지 원자탄 전술핵무기 핵공격기지 핵기지화 핵무기 핵무장 핵무장화 핵미사일 핵반입 핵잠수함 핵탄두 핵폭탄

<표 6> 핵 관련 핵심어가 포함된 단어

아래 <그림 7-1>는 핵위협에 대한 감성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제일 상단에 배치된 단어들은 위협의 강도가 매우 강한 범주에 속하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위협의 강도가 점차 낮아진다. 원의 크기는 해당 단어의 등장 빈도에 비례한다. 이를 보면 북한 로동신문에서 나타나는 핵위협인식이 미국 핵전략의 변화와 조응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16) Goldstein,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36, No. 2 (June 1992).



<그림 7-1> 북한 핵 위협인식의 통시적 변화 (1957-1986년):
위협의 강도에 따라 4개로 분류하였으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도가
점점 약해짐. 원의 크기는 단어의 등장빈도에 비례함.

첫째, 미국이 핵 선제공격에 부정적이고 한반도 핵공격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던 (A) 시기 (1945~1952년)과 미국이 대량보복전략을 채택하면서 핵 선제공격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지만,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B) 시기(1953~1956년)에는 핵공격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위 그림에서 아무 것도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미국이 핵 선제공격에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핵공격능력을 보유한 (D) 시기 (1957~1961년)과 (F) 시기 (1974~1977년)에는 북한의 핵위협인식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1957년부터 북한의 핵위협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1957년부터 1961년까지 북한은 “원자전쟁”과 “핵전쟁”과 같이 핵위협의 강도가 매우 강함에 속하는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1961년에는 “열핵전쟁”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수소폭탄으로 치러지는 전쟁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다.¹¹⁷⁾ 1957년부터 1959년 사이에는 “원자전쟁준비”와 “원자공격훈련”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합동군사훈련을 비판하였다.

한편 (F) 시기는 한국의 핵무기 배치량이 감소되고 있었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핵위협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술레진저 독트린의 발표로 미국의 핵전략에서 핵선제공격이 다시 강조되었던 반면, 1968년부터 한국에 배치된 핵무기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위 그림을 보면 1974년부터 핵위협의 강도가 높은 단어들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특히 1974년과 1975년에 아주 강함과 강함에 속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는 한국과 프랑스의 원자력 협정과 술레진저 독트린의 발표로 북한이 한국의 핵무장과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매우 두려워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전술핵무기”와 “핵무기사용”이라는 단어가 1975년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북한이 필요하다면 국지전에서도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술레진저 국방장관과 포드 대통령의 발언을 “핵공갈”로 치부하면서도, 동시에 핵

117) 일반적으로 핵융합으로 만들어진 수소폭탄은 핵분열로 만들어진 원자폭탄보다 약 1천 배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1952년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였고, 소련은 다음 해인 1953년에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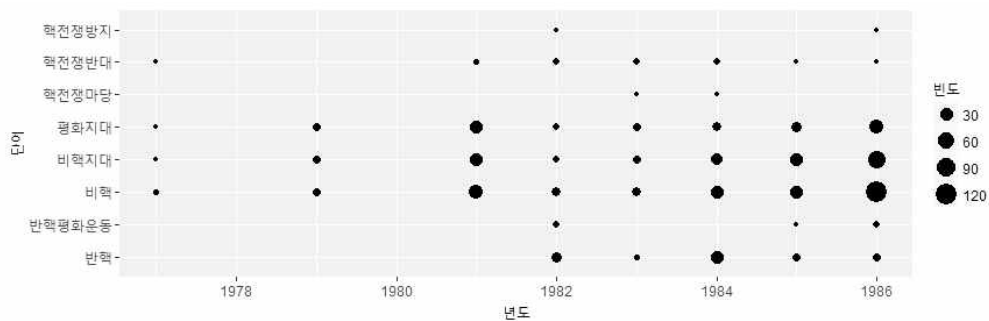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강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후반에 가면 핵위협이 다소 감소하는데 이는 핵선제공격을 기피했던 카터 행정부의 핵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주한미군의 핵전력이 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대량보복전략에 비해 상대적으로 핵 의존도가 낮은 유연반응전략을 전개했던 시기인 (C) 시기(1962~1967년)와 (F) 시기(1968~1973년)에는 로동신문에서는 핵위협의 강도가 높은 표현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시기에는 핵위협의 강도가 낮은 표현들이 주로 나타났는데, 1963년부터 매년 등장하는 ‘핵잠수함’에 대한 언급은 미국 핵잠수함의 태평양 배치와 일본 기항과 연관되어 있다. 1960년대 미국은 핵잠수함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동시에 핵잠수함을 대대적으로 태평양에 배치하였다. 동시에 일본 항구에 미국의 핵잠수함과 핵함선을 기항시켜 일본인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북한은 일본 정부가 “핵무장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하지만 핵잠수함에 대한 언급 빈도에 비해 이 시기에 핵위협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는 표현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외적으로 1965년에는 “핵전쟁”과 “핵공갈”이라는 표현들이 몇 차례 등장하는데, 이는 베트남전쟁에서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미국의 발언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반도에 여전히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핵전략에서 핵선제공격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 핵공격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 시기 (1981~1986년)에는 주한미군의 핵무기 보유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동시에 미국의 핵전략도 더 이상 핵 선제공격에 의존하고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핵전쟁”, “핵전쟁준비”, “핵전쟁위협”과 같이 북한이 핵위협을 받고 있음을 지지하는 단어들이 다시 등장하였다. 핵위협을 뒷받침하는 단어들의 등장은 “핵전쟁준비”와 “핵전쟁연습”은 1976년부터 시작된 한미 간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으로 인해 증가된 북한의 위협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핵위협에 대한 두려움은 1983년과 1984년에 가면 더욱 심각해진

다. 이는 1983년 3월 레이건 행정부가 발표한 전략방위구상과 연관되어 있다. 핵선제공격을 통해 상대의 도발을 억지하는 전략에 회의를 느낀 레이건 대통령은 우주 공간에서 소련의 핵미사일을 요격시킴으로써 소련의 핵공격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레이건 대통령은 전략방위구상을 핵공격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평화적이고 방어적인 프로그램으로 보았으나, 전략방위구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를 매우 도발적인 전략으로 간주하였다. 마찬가지로 전략방위구상이 발표된 1983년부터 매우 강한 핵위협에 속하는 단어들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북한에게는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을 매우 공격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7-2> 핵무기 반대에 대한 북한의 언급 추이 (1976-1986년)

한편, <그림 7-2>는 핵무기 반대에 대한 북한의 언급 추이를 보여준다. 북한은 1970년대 후반부터 “비핵지대”와 “평화지대”를 언급하기 시작하는데, 보다 이에 대한 언급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해는 1981년부터이다. 이는 김일성의 한반도 비핵화 공세를 반영하는데, 김일성은 1980년 10월 조선로동당 제6차당대회에서 한반도 비핵 평화 지대를 제의하였다. 북한의 반핵공세는 1986년에 더욱 강화되는데 이는 구소련발 군축공세를 반영한다.¹¹⁸⁾ 1985년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반핵군축 공세를 시작하였다. 구소련에서 시작된 반핵군축 공세에 힘입어 북한은 1986년

118) 박종희 외, 2015, p. 45.

부터 한반도비핵지대안, 핵군축, 주한미군의 핵무기 통제 등을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반핵 공세를 전개하였다. 앞서 이 시기 북한이 핵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어가 급증하였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시기 북한은 핵위협으로 인한 큰 공포를 느낌과 동시에 핵위협을 벗어나기 위하여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담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음을 알 수 있다.

3. 소결

정리하자면, 냉전기 북한은 지속적으로 안보 위협을 받아 왔다고 주장과 달리 북한의 핵위협인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명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 때 북한의 핵위협인식에 주요한 변화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은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 보유 요인과 미국의 핵공격 의도 요인이었다. 북한의 핵위협인식은 이 두 가지 요인이 처음으로 모두 충족되었던 1957년에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의 강화 혹은 약화 여부가 북한의 핵 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았지만, 그 능력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능력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대로 주한미군이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지라도 미국 정부가 핵공격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북한의 핵위협인식은 크게 약화되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핵공격을 가할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북한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었다. 소련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즉시 공중에서 미사일을 요격하여 핵공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곤 하던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 방위 구상은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더 큰 위협을 느끼게 하였다. 이를 통해 어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위협을 가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의 행동을 위협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정치에서는 물질적인 현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은 스스로 핵위협을 강하게 받고 느낄 때, 반핵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며 핵위협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1957~1961년 사이에도 반핵 담론이 등장하기는 하였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반핵 담론이 전개된 시기는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이었다. 반핵 담론은 주한미군 핵무기 통제와 같이 북한에게 핵위협을 가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담론으로서 생산된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1957년부터 1986년까지 북한 조선로동당에서 발간하는 『로동신문』 기사들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냉전기 핵무기 관련 북한의 담론 변화를 살펴보고, 냉전기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어떻게’ 그리고 ‘왜’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즉, 북한의 핵위협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주목적이다. 북한의 위협인식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북한의 위협인식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동신문에 등장하는 핵 관련 단어가 해당 사안에 대한 북한정권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가정 하에, 로동신문에서 핵위협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추출하여 추출한 단어들의 사용빈도수를 북한의 핵위협인식을 측정하는 지표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본 논문이 북한의 핵위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미국 핵전략에서 핵 선제공격 의도와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 보유 여부를 주목하였다.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미국이 핵선제공격 의도와 핵공격 능력을 동시에 보유할 때, 북한의 핵위협인식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냉전기 미국의 핵전략과 한반도 정책은 어떠한 변화를 거쳤을까?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세계 최초의 핵폭탄이 투하된 시점까지도 명확한 핵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었던 미국은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극화된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효과적인 핵전략을 세우기 위해 수차례 수정을 거쳤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전략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대량보복전략, 케네디 행정부의 유연반응전략, 닉슨 행정부의 술레진저 독트린,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적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핵선제공격을 실행할 의도가 있는가에 주목하였고, 아이젠하워 행정부와 닉슨 행정부 시기에는 핵선제공격 의도가 분명하게 표명되었던 반면, 케네디 행정부와 카터, 그리고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는 그러한 의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핵공격능력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미국의 한반도 핵정책을 살펴보았다. 1958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급격히 불어난 국가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규모를 감축하는 대신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핵무기 배치를 통해 한국 정부의 안보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동시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북한의 위협을 억지할 수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958년 초 한국에 핵무기가 최초로 배치된 이후, 핵무기 배치량은 점차 증가하여 1967년에는 총 949개의 핵무기가 배치되었다. 핵무기 배치량은 미국이 베트남전쟁과 아시아에서의 개입 축소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감소하였다. 즉, 한국에서의 미국의 핵공격능력은 1967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추이로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1957년부터 1986년까지 『로동신문』에서 “원자” 또는 “핵”을 기사의 제목이나 본문에 포함한 기사들을 분석하여 냉전기 북한 핵담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담론의 전반적인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거시적 분석방법과 핵담론을 구성하는 단어의 사용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거시적 분석방법에서는 핵문제를 다룬 로동신문 기사의 연간 게재 빈도수 분석과 매년의 로동신문을 하나의 문서로 간주하여 유사한 내용의 문서들을 군집화하는 클러스터링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핵문제에 대한 북한의 관심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북한 핵담론의 분기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연구시기에 해당하는 30년 동안의 북한 핵담론은 크게 ① 1957-1961년 ② 1962-1973년 ③ 1974-1979년 ④ 1980-1986년의 네 개의 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핵 관련 기사의 문서간 상관성이 미·소 핵경쟁의 역사적 전개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시적 분석 방법으로는 앞선 분석을 통해 확인한 네 개의 시기별로 핵담론을 구성하는 핵심 단어를 파악하는 단어 빈도수 분석과 한 문서 안에서 동시에 등장한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는 단어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시기별 핵심 어휘와 단어들의 사용 방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 핵담론의 주된 관심사가 각 시기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밝혔다. 1957-1961년에는 소련의 평화 공존 정책과 주한미군의 핵무기 반입, 1962-1973년에는 미 핵잠수함의 일본 기항과 일본 인민

들의 반핵 투쟁, 1974년-1980년에는 한국의 핵프고르매과 슬레진저 독트린, 마지막으로 1981-1986년에는 팀 스피리트 군사훈련에 대한 비판과 한반도 비핵지대 창설이 핵심 주제였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미국’이 전 기간에 걸쳐 상위 랭킹을 차지한 북한 핵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핵위협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선택하여 그 단어들이 사용되는 빈도에 대한 감성분석(sentiment analysis)을 실시하여 핵위협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핵위협인식의 변화는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과 미국의 핵선제공격 의도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상관성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게 핵공격을 가할 의도와 능력을 갖추자 커다란 두려움을 드러냈다.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의 강화 혹은 약화 여부가 북한의 핵 위협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지만, 그 능력 자체를 보유하고 있는 이상 능력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반대로 주한미군이 핵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지라도 미국 정부가 핵공격을 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면 북한의 핵위협인식은 크게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하지만 언제나 이러한 논리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한 국가는 상대방의 물질적인 능력이나 특정 행동 뒤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의도와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는 물질적인 현실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담론에 대한 내용 분석과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질적 연구가 내포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최소화하고 연구의 일관성과 체계성, 그리고 검증 가능성을 높이려고 함에 의의를 갖고 있다. 둘째, 북한 노동신문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위협인식을 보다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변수를 제시했다. 북한의 위협인식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위협인식을 측정하는 명확한 기준 없이 북한 정권에서 발행한 여러 문건들을 활용하여 다소 일관성을 결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미국의 핵전략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반응 국가로서 북한의 모습을 확인하였다.

한편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연구의 시기가 냉전기로 한정되어 탈냉전기 북한의 핵위협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지 못하였다. 미국의 핵 공격 의도와 주한미군의 핵공격 능력 보유는 냉전기에만 한정되는 요인이 아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탈냉전기에 두 요인의 변화가 북한의 핵 위협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북한 핵위협인식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검증이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주한미군의 핵무기 재반입 및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북한이 자국을 둘러싼 안보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보다 선명한 렌즈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1) 북한 자료

『국제법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2).

『로동신문』 . 1957년 7월 2일.

『로동신문』 . 1957년 7월 3일.

『로동신문』 . 1957년 7월 9일.

『로동신문』 . 1957년 7월 11일.

『로동신문』 . 1957년 8월 18일.

『로동신문』 . 1958년 1월 5일.

『로동신문』 . 1958년 1월 31일.

『로동신문』 . 1958년 2월 2일.

『로동신문』 . 1958년 3월 11일.

『로동신문』 . 1963년 9월 29일.

『로동신문』 . 1963년 12월 10일.

『로동신문』 . 1964년 1월 22일.

『로동신문』 . 1964년 9월 6일.

『로동신문』 . 1965년 5월 15일.

『로동신문』 . 1965년 5월 18일.

『로동신문』 . 1966년 3월 3일.

『로동신문』 . 1965년 1월 1일.

『로동신문』 . 1974년 10월 19일.

『로동신문』 . 1974년 12월 14일.

『로동신문』 . 1975년 1월 5일.

『로동신문』 . 1975년 1월 7일.

『로동신문』 . 1970년 2월 15일.

『로동신문』 . 1975년 1월 11일.
『로동신문』 . 1975년 1월 12일.
『로동신문』 . 1975년 1월 17일.
『로동신문』 . 1975년 3월 21일.
『로동신문』 . 1975년 6월 3일.
『로동신문』 . 1975년 6월 15일.
『로동신문』 . 1975년 6월 15일.
『로동신문』 . 1975년 6월 22일.
『로동신문』 . 1975년 6월 25일.
『로동신문』 . 1975년 6월 25일.
『로동신문』 . 1975년 7월 30일.
『로동신문』 . 1981년 2월 15일.
『로동신문』 . 1982년 3월 3일.
『로동신문』 . 1982년 11월 11일.
『로동신문』 . 1986년 6월 22일.
『로동신문』 . 2013년 2월 12일.
『로동신문』 . 2015년 9월 19일.

2) 국내 신문

『경향신문』 , 1958년 1월 19일.
『동아일보』 , 1958년 1월 9일.
『동아일보』 , 1975년 6월 26일.

3) 미국 정부 문건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http://www.presidency.ucsb.edu/ws/?pid=5021> (검색일: 2015년
11월 10일).
Kennedy, John F. 1960, *Congressional Record* (February 29).

Lay, James S. A Report to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162/2)", National Security Council (Washington DC, 1953), pp. 1 - 27: 6. <http://fas.org/irp/offdocs/nsc-hst/nsc-162-2.pdf> (검색일: 2015년 11월 5일).

Schlesinger, James R. 1974. *Annual Defense Department Report, FY 1975*.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http://history.defense.gov/Portals/70/Documents/annual_reports/1975_DoD_AR.pdf?ver=2014-06-25-150705-323 (검색일: 2016년 12월 18일).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1990.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reements: texts and histories of the negotiation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the Assistant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tomic Energy). 1978. "History of the Custody and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July 1945 through September 1977."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68: United States Objectives and Programs for National Security", April 14, 1950, www.fas.org/irp/offdocs/nsc-hst/nsc-68.htm (검색일: 2015년 11월 3일).

4) 국내 정부 문건

대한민국 국방부. 1988. 『국방백서, 1988』.

2. 단행본

1) 국문

박영준·손병권·이승주 편.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서울:

늘품플러스.

박태균. 2006.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파주: 창비.

정육식, 김일영·조성렬, 2009.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파주: 한울.

조동준. 2015. "북한 핵교리의 변화와 미중 협력", 전재성, 구민교 편, 『미중 경쟁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서울: 늘품플러스.

2) 영문

Blacker, Coit and Duffy, Gloria. 1984. *International Arms Control: Issues and Agreements*, Vol. 2. Stanford University Press.

Cha, Victor D., and Kang, David C. 2003. *Nuclear North Korea: A debate on engagement strategies*. Columbia University Press.

Cumings, Bruce. 2004. *North Korea: Another Country*. New York: New Press.

Eisenhower, Dwight D. 1963. *The White House years: Mandate for change*. New York. p.452.

Enthoven, Alain C. and Smith, K. Wayne, 2005. *How Much is Enough?: Shaping the defense program, 1961-1969*. Rand Corporation. p. 174.

Freedman, Lawrence. 1989.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Vol. 20. London: Macmillan.

Hayes, Peter. 1990. *Pacific Powderkeg: American Nuclear Dilemmas in Korea*, New York: Lexington Books.

Hymans, Jacques E.C. 2002. "Why Do States Acquire Nuclear Weapons? Comparing the Cases of India and France," in D.R. Sardesai and Raju G.C. Thomas (eds.), *Nuclear India in the Twenty-First Century*, N.Y.: Palgrave-Macmillan, 2002. pp. 144~146.

- _____. 2006. *The psychology of nuclear proliferation: Identity, emotions and foreign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berdorfer, Don and Carlin, Robert. 2013.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 Platkovskiy, Alexandre. 2000. "Nuclear Blackmail and North Korea's Search for a Place in the Sun," in James Clay Moltz and Alexandre Y. Mansourov. (ed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New York: Routledge, 97.
- Press conference of U.S. Secretary of Defense James R. Schlesinger, 10 January 1974, at the National Press Club, Washington, D.C. 1985. reprinted in P. Edward Haley, David M. Keithly, and Jack Merritt (eds.), *Nuclear Strategy, Arms Control, and the Future*, Boulder: Westview Press.
- Mazarr, Michael J. and Cruickshanks, Eveline. 1995. *North Korea and the bomb: A case study in nonproliferation*. London: Macmillan.
- Mearsheimer, John J. 2001.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WW Norton & Company.
- Sagan, Scott D. and Waltz, Kenneth N. 1995.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A Debate*.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Sagan, Sagan D. 1990. *Moving targets: Nuclear strategy and national secur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olingen, Etel. 2009. *Nuclear logics: contrasting paths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elling, Thomas C. 1980. *The Strategy of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ress.
- Taylor, Maxwell D. 1960, *The Uncertain Trumpet*, New York: Harper & Brothers.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New York: Random House.
- Wittner, Lawrence S. 2003. *The Struggle against the Bomb, vol. 3: Toward Nuclear Abolition: A History of the World Nuclear Disarmament Movement, 1971 to the Present. Stanford Nuclear Age Ser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3. 연구 논문

1) 국문

- 구갑우. 2014. "북한 '핵 담론'의 원형과 마음체계, 1947~1964년." *현대 북한연구*, 17권 1호 (2014.4), pp. 197-250.
- 박건영. 2011. "핵무기와 국제정치: 역사, 이론, 정책, 그리고 미래."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1호 (2011), pp. 1-45.
- 박종희·박은정·조동준. 2015. "북한 신년사(1946-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9(2), pp. 27-62.
- 이재봉. 2008. "남한의 핵무기 배치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하여." *평화학연구* 제9권 제3호 (2008년 12월) pp. 27-48.
- 정성화. 1995. "미국의 대소 핵정책 : 트루만, 아이젠하워 시대." 『미국사연구』, 제9집
- 전성훈. 2002.12.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2002.12) pp. 1-198.
- 조동준. 2011. "핵확산의 추세 vs. 비확산의 방책." 『한국과 국제정치』, 27(1) pp. 47-81.
- 함택영. 2014.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현대북한연구』, 17(2), pp. 260-295.

2) 영문

- Anatoly Diakov, Timur Kadyshev and Pavel Podvig. Nuclear Parity and National Security In New Conditions, "Russian Nuclear Policy: Problems and Prospects." (Ed. by Ivan Safranchouk), The PIR Study Papers, *N 14, May, 2000*, pp. 40-47.
- Ahn, Mun Suk. 2011. "What Is the Root Caus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sian Affairs: An American Review*, 38:4, 175-187.
- Bligh, Michelle C., Kohles, Jeffrey C., & Meindl, James R. 2004. "Charting the language of leadership: A methodological investigation of President Bush and the crisis of 9/11."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9 (3): 562-574.
- Cha, Victor. 2002. "North Korea's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dges, Shields, or Swords."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17, 2.
- Diakov, Antoly. Kadyshev, Timur. and Podvig, Pavel. 2000. Nuclear Parity and National Security In New Conditions, "Russian Nuclear Policy: Problems and Prospects." (Ed. by Ivan Safranchouk), The PIR Study Papers, *N 14, May, 2000*, pp. 40-47.
- Goldstein, 1992. "A Conflict-Cooperation Scale for WEIS Events Data."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6, 2 (June 1992).
- Grimmer, Justin and King, Gary. 2010. "General purpose computer-assisted clustering and conceptualization." PNAS 108(7): 2643-2650.
- Grimmer, Justin, & Stewart, Brandon M. 2013. "Text as data: The promise and pitfalls of automatic content analysis methods

- for political texts.” *Political Analysis*, 21 (3): 267-297.
- Hymans, Jacques E. C. 2008. “Assessing North Korean Nuclear Intentions and Capacities: A New Approach.”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8: 259-292.
- Jo, Dong-Joon and Gartzke, Erik. 2007. “Determinants of Nuclear Weapons Proliferatio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1(1), pp. 167-194.
- Lee, J. B. 2009. “US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in 1950s South Korea &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Toward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Asia Pacific Journal: Japan Focus*.
- Rich, Timothy S. 2012. “Deciphering North Korea's Nuclear Rhetoric: An Automated Content Analysis of KCNA News.” *Asian Affairs* 39, pp. 73-89.
- Sagan, Scott D. “Why Do States Build Nuclear Weapons? Three Models in Search of a Bomb.” *International Security*, Vol. 21, No. 3 (Winter 1996/97): 55.
- Sebastiani, Fabrizio. 2002. “Machine learning in automated text categorization.” *ACM Computing Surveys*, Vol. 34, No. 1, pp. 1-47.
- Shen, Dingli. 2009.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toward North Korea,” *Washington Quarterly*, Vol. 32, No. 4 (October): 176.

4. 학위 논문

- 김상배. 1991. *한국전쟁에서 미국의 핵정책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중구. 2016. *북한 핵담론의 당론화 과정과 당론강화 동학*.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상미. 2013. 미국의 아시아 핵무기 배치 (1964-1968): 베트남 전쟁의 전개와 위협인식의 변화.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5. 인터넷 검색자료

Balazs Szalontai and Sergey Radchenko, "North Korea's Efforts to Acquire Nuclear Technology and Nuclear Weapons: Evidence from Russian and Hungarian Archiv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CWIHP Working Paper No. 53, August 2006.

Dulles, John Foster. "Policy for security and peace." *Foreign Affairs*, XXXII:3 (April 1954).

Mohamed Nagdy and Max Roser. 2016. 'Nuclear Weapons'. *OurWorldInData.org*.

<https://ourworldindata.org/nuclear-weapons/> (검색일: 2016년 11월 10일).

Kristensen, Hans. "Japan Under the US Nuclear Umbrella", Global Problem Solving nuke policy Supporting Documents, July 21, 1 9 9 , <http://nautilus.org/supporting-documents/japan-under-the-us-nuclear-umbrella/> (검색일: 2016년 10월 8일).

Wheeler, Warren. "The American Defense Budget", 18 September, 2007, *Centre for Defense Information* (online). Available: <http://www.cdi.org/PDFs/Defense%20Spending%20Over%20Time.pdf> (검색일: 2016년 11월 12일).

X (George Kenne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25, No. 4 (1947). pp. 566-582.

Abstract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
Nuclear Strategy on North
Korea's Nuclear Discourse in the
Cold-War era(1957-1986)

Cho, ChaeEu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Master's Degre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changes in North Korea's nuclear discourse in the Cold War era(1957~1986) through automated text analysis over "Rodong Shinmun," North Korea's official newspaper. Despite vast studies on North Korea's hidden motivation for nuclear armament, little is known about how it has framed nuclear issues and what has caused the changes in the discourse. I applies two types of text analysis that are useful for understanding historical changes in North Korean nuclear discourse to an original collection of articles from Rodong Shinmun from 1957 to 1986: macro text analysis-nuclear related article frequency and document clustering- and micro text

analysis-word frequency, network analysis and sentiment analysis-.

The findings show that North Korean nuclear discourse during the Cold War era can be categorized to four periods and North Korea 's perception of nuclear threat showed a similar trajectory to the change in the USFK's nuclear capability and the intentions of the US preemptive nuclear attack. Specifically, when both the intention of the US preemptive nuclear attack and the USFK's ability to attack North Korea are satisfied, North Korea's nuclear threat perception is strong, and if either of the two conditions is not met, North Korea's nuclear threat perception tends to go weak. Moreover, when both conditions were satisfied, it turned out that the change in the nuclear capability of the USFK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However,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s nuclear threat was not consistent with the intentions of the US preemptive nuclear attack. It has been found that the degree of threat can significantly change depending on how a country interprets the security reality surrounding its own country.

Keywords : North Korea, Nuclear Discourse, U.S. Nuclear Strategy, Text Analysis, Nuclear Threat, Visualization

Student Number : 2013-20200